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대학 인성교육의 재고
- 인성교육의 현황 및 인성실천도를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 인 선

대학 인성교육의 재고

- 인성교육의 현황 및 인성실천도를
중심으로 -

주 영 애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 인 선

인준서

박인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0월

심사위원장

최 배 영



심사위원

함 경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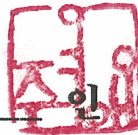
심사위원

김 선 주



심사위원

주 영 애



심사위원

안 혜 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인성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의 규명 및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 인성교육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연구와 조사연구를 통한 대학생의 인성실천도 분석을 병행하였다.

대학 인성교육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연구를 위해서 관련된 자료 수집은 2015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인성 교육 3.0>사업에 선정된 4개 대학교와 문헌고찰, 저널 및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된 9개 대학교 등 총 13개 대학의 인성교육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 인성교육의 실태를 목적적·구조적·내용적 측면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목적적 측면은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중심으로 NVivo 11(Trial version)을 활용한 텍스트 자료 분석을 통해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철학을 파악하였고, 인성과목에 대한 수업목표를 조사·분석하여 수업의 지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인성 과목 개설(학년), 과목의 형태를 중심으로 수업구조를 살펴보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과목명, 수업내용 및 수업방식을 중심으로 수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인성실천도 분석을 위한 조사연구는 문헌고찰 및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이론을 토대로 연구의 개념적 기틀

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가설적 모형은 미시체계 요인과 유기체 요인으로 구분된다. 미시체계 요인은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이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유기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변인으로 갖는 가정환경체계, 인성교육의 창의적 교수법, 수업참여, 수업 외 참여, 교수의 정서적 지지를 변인으로 갖는 학교환경체계,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를 변인으로 갖는 사회환경체계로 구성된다. 유기체 요인은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으며 한 개인 자신이 지니는 것으로서 대학생 개인이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인성중요도, 결과변수로서 인성을 실천하는 정도를 인성실천도로 구성된다.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와 관련된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대학에서 인성관련 수업 수강 경험이 있는 국내 4년제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15부를 제외한 48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Windows program 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인성교육 현황 파악 분석 결과는 ① 목적적 측면에서는,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철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인성 함양과 증진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성 과목에 대한 수업의 방향성은 인성 증진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사회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실천 중심으로 수업 목표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조적 측면에서는, 1학년 혹은 전 학년 대상

으로 인성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이 절반이상인 7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③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론 중심의 수업 내용과 방식을 추구하는 대학 2개이며, 나머지 11개 대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습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실습 중심의 대학 중에서 강의실 위주의 단순 실천형 대학이 4개이고, 현장 체험형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은 7개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인성실천도 분석 결과는 ① 인성실천도에 대해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력은 인성중요도, 사회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가정환경체계 순이다. ② 인성중요도에는 가정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환경체계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인성실천도는 가정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가 간접 및 총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학교환경체계는 직접 효과만 있었다. ④ 가정환경체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이 인성실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환경체계에서는 학교 수업참여정도와 교수의 정서적 지지가 인성실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환경체계에서는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가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한 대학 인성교육에 대한 재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은 가정환경체계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인성교육은 가정교육이 그 시발점이며 부모의 삶의 태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결혼을 구체화하는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예비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의 확대가 그들의 인성실천도에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전공과 연계한 인성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특

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전공강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아진 관심과 참여도를 기반으로 인성실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선택한 전공교과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게 되므로 학교 환경에서의 보다 질 높은 인성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도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형태의 인성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이 제공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친구를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음으로써 상호 이해, 존중 및 배려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부모의 애정은 학교에서의 교수 지지로 발전되고, 교수의 관심과 지도편달은 결국, 미래 직장환경에서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과 연계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이 ‘인성실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6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10
1. 인성의 개념과 대학인성교육의 필요성	10
1) 인성과 대학인성교육의 개념	10
2) 대학인성교육의 필요성	17
3) 대학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	21
2. 인성실천과 생태체계이론	34
1) 생태체계와 인성	34
2) 인성과 가정환경체계	39
3) 인성과 학교환경체계	44
4) 인성과 사회환경체계	47
3. 대학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	50
III. 연구방법	55
1. 대학 인성교육의 실태연구	55
1) 연구문제	55
2) 연구 대상 및 선정기준	56
3) 자료수집 방법	58
4) 분석방법	58
2. 대학생의 인성실천도 조사연구	59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59
2) 자료수집	61
3) 조사대상	62
4) 조사도구개발	63
5)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89
IV. 연구결과 및 분석	91
1. 대학 인성교육의 현황분석	91
1) 목적적 측면	91
2) 구조적 측면	98
3) 내용적 측면	100
2. 대학생의 인성실천도 분석	108
1)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108
2)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112
3)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114
4)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116
5) 대학생의 각 환경체계가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118
V. 결론	122
1. 연구결과 요약	122
2. 대학 인성교육의 재고	129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3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차

<표 II-1> 인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11
<표 II-2> 인성교육의 효과	13
<표 II-3>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22
<표 II-4> 인성교육 핵심가치·덕목 내용 및 조작적 정의	24
<표 II-5> 대학생 인성검사 요인명에 대한 조작적 정의	26
<표 II-6> 유교적 인성 척도의 각 요인별 문항내용과 문항수	27
<표 II-7> 예비교사 교직 인성 평가도구	28
<표 II-8>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의 요인구성	30
<표 II-9> KEDI(2013) 개발된 인성 요인 구성	31
<표 II-10> 기존 인성교육 구성요인과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와 의 관계	33
<표 III-1> 2014년도 <인성교육 3.0>사업을 통해 개발된 4개 대학 교과목	56
<표 III-2> 9개 대학과 각 대학의 인성교육 대표 교과목	57
<표 III-3>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63
<표 III-4> 설문지 구성 요소와 문항 수	64
<표 III-5> 가정환경체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7
<표 III-6> 학교환경체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9
<표 III-7> 사회환경체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1
<표 III-8> 인성중요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2
<표 III-9> 인성실천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3
<표 III-10>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75

<표 III-1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76
<표 III-12> 대학생의 각 환경체계와 인성중요도, 인성실천도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80
<표 III-13> 가정환경체계 하위요인들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82
<표 III-14> 학교환경체계 하위요인들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84
<표 III-15> 사회환경체계 하위요인들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86
<표 III-16> 인성중요도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87
<표 III-17> 인성실천도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89
<표 IV-1> 13개 대학의 건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91
<표 IV-2> NVivo를 활용한 13개 대학의 건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분석 결과	94
<표 IV-3> 13개 대학의 인성과목 수업 목표	96
<표 IV-4> 13개 대학의 인성과목 개설 및 형태 분석	99
<표 IV-5> 대학의 인성과목명과 내용 분석	101
<표 IV-6> 13개 대학의 인성과목 수업방식 분석	105
<표 IV-7> 대학생들의 대학 인성교육에 관한 인식	111
<표 IV-8>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 하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검증	113
<표 IV-9>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 하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검증	115
<표 IV-10>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 하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검증	117
<표 IV-11> 구성변수 간의 관계 분석결과(기본연구모형)	119
<표 IV-12> 대학생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체계가 인성실천도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121

그림 목차

<그림 I -1> 연구의 구성	6
<그림 II -1>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 모형	37
<그림 III-1> 제 환경체계 변인과 인성실천도 관계의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61
<그림 III-2> 구성개념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79
<그림 IV-1>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 하위요인, 인성실천도의 구조모형	114
<그림 IV-2>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 하위요인, 인성실천도의 구조모형	116
<그림 IV-3>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 하위요인, 인성실천도의 구조모형	118
<그림 IV-4>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 인성중요도, 인성실천도 간의 구조모형	12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발생한 대구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의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 후 다시는 그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흐름이 있어왔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학생들 간의 욕설, 학교 부적응 행동,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의 부재 등의 문제점도 우리 사회와 학교의 인성교육 부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여론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요구되고 있었다. 이렇듯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정부는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시간을 정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신규제정 2015. 1. 20)」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만연된 경쟁적 풍토와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인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높다.

그 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인성교육 실천 사례 보고와 실태분석(문용린 외, 2004; 현주 외, 2009)이 있었다. 또한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 변인들의 탐색과 교과별 인성교육 요소 추출 및 방안에 관한 연구들도 있어왔다(이호중, 2001; 류청산 외, 2003; 박성미 외, 2012; 차은주 외, 2013; 현주, 2013).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고, 특히

초등학교에 집중된 연구이다. 이는 초등학생 단계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기도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비해 인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유리하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중등학교 단계에서도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우쳐진 현실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 결과 대학생은 인성교육의 공백기를 거쳐 대학에 들어온다고 보아도 크게 지나치지 않다(김명순 외, 2012). 손승남(2014)은 대학생을 ‘입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할 기회를 놓친 미숙한 성인’이라 하였다. 이 미숙한 ‘성인’들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대학에 들어와 적지 않은 혼란과 방황을 겪고 있다.

지나친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 출세 지향적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도덕적 품성 함양 등에 대한 교육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상당수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및 자기 정체감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학습동기유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감성지능(EQ) 발달이 부족하여 대인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양혜련, 2006). 특히 상대에 대한 배려나 존중의식 부족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대학생들의 잇단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그러하다. 아직도 우리에게 충격으로 기억되고 있는 2011년에 발생한 ‘고려대 의대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한국일보, 2011. 6. 3), 2013년도에 발생한 ‘고대생 몰래 카메라 사건’, 2016년도에 발생한 ‘대학 동기를 1년간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조선일보, 2016. 9. 12), ‘서울대 등 다수 대학에서 발생한 SNS(세칭 ‘단톡방’) 상 여성 동기 상대 성희롱 사건’,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의 성폭력 사건(연합뉴스, 2016. 11. 4)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시기의 인성교육 부재’에 놓일 수밖에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이념의 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전제아, 2005; 지희진, 2013). 또 많은 대학들이 인성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성함양이라는 목표 아래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 및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육관점으로 여러 형태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 왔기에, 대학에서 대학인성교육이라는 큰 그림을 보면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다 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성교육 활성화(김태현 외, 1998; 양혜련, 2006),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이영애, 2006; 노이경 외, 2007; 서혜석 외, 2009; 이주희 외, 2009; 박은민, 2012; 고시용 외, 2012), 인성교육의 실태 또는 인식 파악(전제아, 2005; 이은진 외, 2012; 진의남, 2012; 강보라 외, 2013; 조명실, 2013; 지희진, 2013; 홍순희, 2014), 인성함양 모델제시(이하준, 2014; 최재희, 2015), 인성덕목 분석(류청산 외, 2006)이 있고, 대학생의 인성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에 대한 연구(전재선, 2010; 김명순, 2012; 서경혜 외, 2013; 이윤선 외, 2013) 등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과 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 사이에 있는

대학생은 원 가정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속되는 사회이며, 유아기로부터 아동기, 사춘기를 거쳐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인성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박미연, 2003; 정현주, 2006). 또한 대학생은 여전히 대학이라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대학생은 입학한 후 대학이라는 새로운 시설과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과는 다른 학문분야를 공부하며, 독립된 주체로서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맺어 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 외에도 동아리 활동과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신정철 외, 2008).

이렇듯 한 대학생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새롭게 접하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받게 된다.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 연구에 있어서 성장하는 유기체(Organism)와 그 유기체가 실제 거주하고 성장 변화하는 환경 간의 일생동안 일어나는 조절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광범위한 접근법인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인간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항상 변화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다. 그는 개인을 둘러싼 생태적 환경 체계로 크게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를 제시하였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응과 발달은 이들 생태체계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각의 생태학적 환경체계는 하위 환경체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각 유기체의 성장과 발달 및 적응 과정에서 여러 환경체계들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이현아 외, 2013; 강대식,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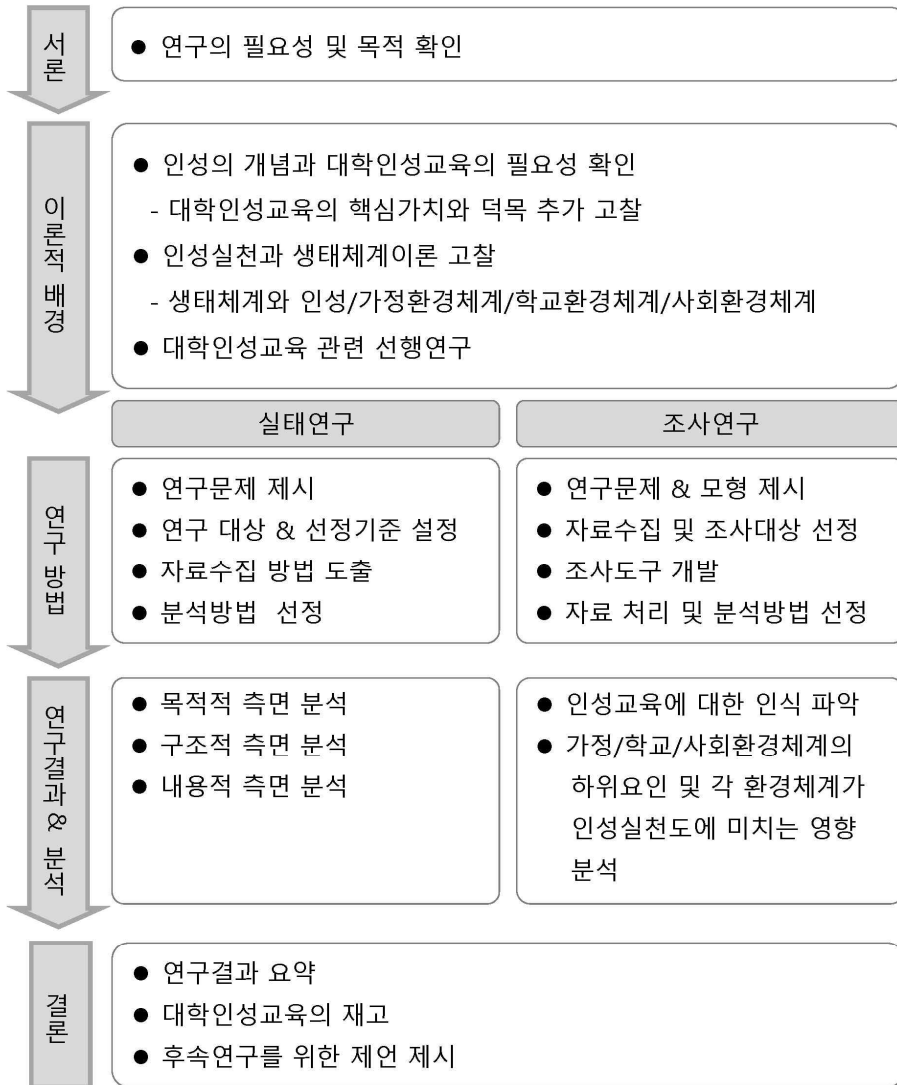
대학생은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인이다. 전통적인 인

간 발달상 대학생은 유아, 아동,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 인성 형성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인성은 전 생애를 걸쳐 발달되는 것이고, 특히나 예비 부모가 될 대학생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은 오히려 다른 시기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인성교육의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하여, 각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인성수업의 방향성 및 수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헌고찰 및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을 토대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개인의 행동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볼 때, 개인 자신이 지니는 변인인 유기체(Organism) 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성중요도와, 그리고 인성을 실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성실천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 즉,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유기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미시체계(Microsystem) 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변인으로 갖는 가정환경체계와 인성교육의 창의적 교수법, 수업참여, 수업 외 참여, 교수의 정서적 지지를 변인으로 갖는 학교환경체계로,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를 변인으로 갖는 사회환경체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두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인성실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대학생 인성 실천 정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방향성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의 구성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인성실천도·인성중요도

인성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본성으로, 인성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가치 및 덕목은 보는 이의 관점이나 가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에 따르면 ‘인성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성이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본성이며,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심성과 인격 및 행동특성으로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8가지를 실천하는 정도를 인성실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 정도를 인성중요도라 명명하였으며, 8가지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2) 가정환경체계

가정은 인간발달에 있어 유아기로부터 아동기와 사춘기를 거쳐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인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박미연, 2003)이며, 인간이 접하는 최초의 환경이다.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이 갖는 최초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성장 초기에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는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의하여 성격 특성이 결정될 수 있다(최민정,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체계란 태어나서 자란 집안의 분위기로 개인의 성격과 행동유형을 형성하는 환경체계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를 가정환경체계로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이 인성을 실천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 내 환경체계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학교환경체계

학교란 일정한 목적·교과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네이버 사전, <http://krdic.naver.com/>)으로, 학교환경에서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학교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일정한 목적 하에 전문적인 교수자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적, 외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수업 내 개방적 수업분위기와 수업 환경은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주고(권순범 외, 2012; 신종호 외, 2013), 또한 자율적인 교수법과 학생들의 참여도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와의 긍정적 심리적 관계 또한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에 큰 영향을 끼치며 학교 생활참여에도 관계가 있다(유경훈, 2009; 허은영, 2009; 정영란 외, 2012). 이에 본 연구는 학교환경체계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문적인 교수자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내적, 외적인 행동유형을 교육하는 환경체계로 정하고 이를 학교환경체계로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환경체계로 교수의 창의적 교수법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생생활참여 정도 그리고 교

수의 정서적 지지를 학교환경체계의 하위요소로 구성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4) 사회환경체계

모든 교육에 대해 그렇듯이 사회는 커다란 배움의 터전이다.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은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정과 학교를 제외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집단을 사회(네이버 사전, <http://krdic.naver.com>)라 정의할 수 있고, 친구 및 기타 사람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인 도움과 원조로 대학생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사회환경체계라 한정시켜 이를 사회환경체계로 명명하고자 한다.

대인관계 즉, 한 개인과 관계된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 등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다른 말로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는데, 이 중 대학생 시기는 더욱 확대된 사회적 관계를 가져 사회적 지지도 확대되는 시기이다(조수경, 2009).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친구관계가 강화되며,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확대된 사회 망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체계로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온라인 및 확대된 사회관계망에서 받는 지지를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라 명명하고 사회환경체계의 하위요소로 구성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성의 개념과 대학인성교육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인성의 개념과 대학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과 선행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인성교육 내용 분석을 통해 대학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성과 대학인성교육의 개념

학교 폭력, 청소년 범죄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될 때마다 인성교육의 부실과 부족함이 거론되어 왔다. 그렇다면 인성이란 무엇일까? 사실 ‘인성’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한 마디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인성’의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인성(人性)이란 ‘사람의 성품이자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유사한 의미로 인품, 인격, 기질, 성격, 인간성, 사람 됨됨이, 인간의 본성, 생태적으로 타고난 심성 등이 있다고 하였다(현주 외, 2009). 교육과학기술부(2010)에서는 인성이란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성은 ‘타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심리적 양식으로서 타인의 언행에 대해 배려하는 공감능력과 소통하는 태도로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해 책임성 있게 실천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정의적 행동, 책임감, 인내심, 타인 이해, 좌절극복, 불안감 극복,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등 인성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화되어 제시되어 있다(곽정환, 2003; 김경숙, 2007).

인성을 영어로는 character와 personality로 구분하고 있는데, character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 따위를 고려한 개개인의 성질이나 경향으로 후천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특성이라고 정의하며, personality는 사람의 타고난 성품으로 남에게 인상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특질의 동일체로 인간의 본성이다. 교육의 목적과 대상으로 삼는 인성이란 character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류청산 외, 2003)이다.

이처럼 인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천세영 외(2012) 연구에서는 인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다음 <표 II-1>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II-1> 인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구분 학자	인성의 개념 정의
황응연(1992)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 및 태도, 동기, 경향성, 인생 과정들의 총합,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독특한 구조이며, 인성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
이근철(1996)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및 정(감정) 등을 의미, 넓게는 지·덕·체 또는 지·정·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

한국교육학회 (1998)	사람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 된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
이윤옥(1998)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가치개념의 의미를 내포
남궁달화 (1999)	사람의 성품이며, 성품은 성질과 품격.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사람됨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
조난심(2004)	인성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을 지칭하는 것
미(美)교육부 (2007, 2008)	존중,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 신뢰, 시민성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서적, 지적, 도덕적 자질은 물론 이러한 자질들이 친사회적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조연순(2008)	자신의 내면적 요구와 사회 환경적 필요를 지혜롭게 잘 조화 시킴으로써 세상에 유익함을 미치는 인간의 특성
현주 외(2009)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

* 천세영 외 4인(2012).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연구 2012-41, p.43 재인용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성이란 개념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본성이며, 더불어 함께 잘 살아 가는 데에 필요한 바람직한 심성과 인격 및 행동특성이며, 이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은 무엇일까? 인성교육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교육학회(1998)에서는 인성교육을 ‘기존의 인지적으로 편중된 교육상황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정의적인 측면 및 인간의 본성

과 관련한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건강한 전인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생태적인 본성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 교육부는 인성교육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 친구, 이웃, 지역 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고 일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고와 행동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현주, 2013 재인용). 또한, 인성교육진흥법(법제처, <http://www.moleg.go.kr>)에서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13004호).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해 논의한 Berkowitz, M.W.L & Bier, M. C. (2007)는 “What works in character Education?” 연구에서 인성교육의 효과로 크게 위험행동의 감소 여부, 친사회적 능력 증진 여부, 학교생활 증진 여부, 사회적·정서적 증진 여부의 네 가지 영역에서 성과를 확인하였다. 인성교육의 효과를 영역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표 II-2> 인성교육의 효과

영역	구체적 내용
위험행동의 감소	① 위험에 대한 지식 및 신념 - 마약 복용 등을 포함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약물 복용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위험수준이 높은 행동에 대한 믿음, 기준, 약물복용에 대한 태도, 무기 소지 및 폭력에 대한 태도 ② 마약 복용 - 복용 빈도, 복용량, 여러 종류의 마약 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성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인 행위 ④ 자기보호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절하는 기술, 폭력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기술에 대한 지식 ⑤ 폭력/공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리기/괴롭히기, 육체적인 공격과 손상, 욕설과 언어적 모욕, 언어폭력, 회생시킴, 싸움, 고의적인 훼손 ⑥ 일반적인 부적응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집단활동, 무례한 행동, 어른에 대한 반항, 절도, 공공시설물 파괴
친사회적 능력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적·도덕적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인 의사결정능력, 윤리적인 이해,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 도덕적 추론 ② 개인적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공정성에 대한 민감성, 다른 도덕적 가치, 존중, 정직, 윤리적 민감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타인의 영역에 대한 존중, 리더십, 규칙준수 ③ 친사회적 행동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족중심주의 타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민감성, 약속 준수, 타인과 잘 지내기, 존중과 인내심, 타인에 대한 배려, 협동, 타인 돕기, 기타(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공감, 공유, 지역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배양, 윤리적 행동, 긍정적인 방과 후 활동 참여, 민주시민활동 참여) ④ 의사소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기술, 경청 ⑤ 인성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의 특성에 대한 이해, 윤리적 의사결정 ⑥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가족, 친밀한 사이 ⑦ 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가치,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

<p style="text-align: center;">학업 생활 증진</p>	<p>① 학교행동 - 출석, 학교규칙 준수, 정학, 휴학 및 제적, 무단결석, 전반적 교실행동, 학급활동에의 참여</p> <p>② 학교에 대한 애착 - 학교에 대한 유대감, 공동체로서의 학교관,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학급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욕</p> <p>③ 학교에 대한 태도 - 학교에 대한 책임감, 새로운 학교에의 적응, 안전</p> <p>④ 선생님에 대한 태도 -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 선생님에 대한 느낌(신뢰로운지, 지지적인지, 공정한지 등)</p> <p><학문적 목표, 기대 및 동기> - 학교에서 잘 해보겠다는 동기, 교육적 기대, 숙달목표 세우기, 성취 지향 목표 세우기</p> <p><학문적 성취> - 성적, 시험 점수 등을 포함하는 학문적 성취, 성적 향상</p> <p><학문적 기술> - 창의적 학습전략, 학습기술, 집중력</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정서적 전략 증진</p>	<p>① 긍정적 자아 개념 - 자기인식, 자기효능감, 학교 활동에 대한 인식, 긍정적 용어 사용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p> <p>② 독립성과 독창성 - 새로운 과제에 스스로 도전하기, 독립성을 가치 있게 생각하기, 좋은 선택하기, 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학급활동이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하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하기, 친구들과 함께 그룹활동 시 리더로써 행동하기 (신속한 의견 표시, 적극적인 의견주장)</p> <p>③ 위기 극복하기 - 절차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실수나 실패에 대한 순응, 자기효능감, 좌절,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 위기극복기술</p> <p>④ 문제해결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적 해결, 결과에 대해 생각하기, 행동의 적합성,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개념화, 갈등 해결 전략 <p>⑤ 정서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적인 경험에 대한 토론 능력, 감정의 원인 인식, 감정의 변화 이해, 스트레스·불안 감소기술,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동시에 일어나는 감정의 이해,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 표현하기, 인내심 <p>⑥ 연장자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신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자에 대한 지식, 학교, 선배, 미래에 대한 태도, 연장자에 대한 태도
--	--

*출처 : Berkowitz, M. W., & M. C. (2007). What works in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haracter Education*, 5(1), 29-48; 현주 외 4인(2009),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09, p.28-29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무엇일까? 손승남(2014)은 대학 인성교육의 목적으로 자기규정능력, 공동참여 및 책임능력, 연대능력을 들었으며 대학 인성교육의 방향은 가속적으로 변하는 사회와 글로벌 시대에 나와 타인,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박은민 외(2016)는 대학 교양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인성교육방향으로 타자의 고통에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공감교육과 올바른 도덕 판단 능력을 기르는 도덕 판단력 교육이라 하였으며, 이에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외받은 자의 삶에 적극 참여 및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줌과 동시에 민주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소양을 갖추기 위한 상호문화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주장하였다.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인성교육이란 ‘배려, 정직, 공정, 책임, 자기와 타자의 존중, 신의와 성실 등의 보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맺음과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천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인성 특성들을 습득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나와 타인,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의 차원으로까지 확대하여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갖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대학인성교육의 필요성

스스로 행동하며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에 있는 대학생은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대학생이 대학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사회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 교육장이기에'라고 대다수가 답한 이종현(2016) 연구와 일치한다. 대학생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이 사회적으로 issue화 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4.12)이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중시해야 할 내용'을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교육에서는 61.0%, 중학교에서는 53.6%, 고등학교 40.2%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교육 내용은 인성교육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지난 2013년 2월 18일에 국회위원 34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인성교육 실천포럼이 창립되었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예(禮)가 무너지고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 취지를 두었다.

개인의 마비된 인성 때문에 사회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생겨나지 않

도록 초·중등 청소년 시절부터 인성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인성교육진흥법(제13004호)이 제정·공포되어 2015년 7월 21일에 시행 중에 있다. 이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인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며, 가정과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정부차원에서도 인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대학생 인성함양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부에서 시행되는 2015년도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공모를 통해 연령 및 단계별(5단계 : 유아용,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성인·사회일반용)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확산하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인성 교육 3.0’이라는 사업명으로 2014년,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 체험교육과 연동된 대학생 대상으로 한 인성함양 교과목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젠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대학차원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 점검과 함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확장된 청소년기인 대학생에게 인성교육은 사회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이다.

기존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인간 발달 단계의 구분에 의하면 대학생은 청년기 혹은 성인초기로 간주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만 20세를 법률상의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릭슨(E.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의하면 청년기에는 청소년기에 확립된 자신의 정체성을 토대로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이를 자아정체감 확립 시기라 부른다.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으로서, 이를 확립하는 것이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하였고, 콜버그(L.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서도 이 시기에는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적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시기라 하였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기가 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과 의무적인 군복무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그 시기는 연장될 수밖에 없는 실정(정옥분 외, 2004)에 놓여 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10)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성인기 과업을 성취하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이 시기의 대학생을 아직 성인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 주로 후기 청소년기로 분류하고자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성인기는 교육을 마치고,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함으로써 시작되기 때문에 대학생을 성인기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으며,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기의 확장을 주장하는 Arnett(2007)는 오늘날 고등교육의 확대로 인해 대학생을 청소년기로 보아야하며, 그 시기의 연령을 30세까지 연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은 성인 세계로 진입하는 시기이지만 인간관계, 직업 결정, 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기 혹은 후기 청소년기(middle adolescence:18-24세, late adolescence:24-30세)에 속한다(이한샘, 2014)고 하였다.

이처럼, 시대와 사회의 변화와 대학입시를 위해 억압된 청소년기를 보내야만 하는 교육적 환경의 영향으로 대학생 시기에 가장 큰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겪게 되며, 대학생들에게 정체감의 혼란과 좌절, 대학생활에 대한 무기력으로 초래하여 대학 중도 탈락을 이끄는 계기(김선애 외, 1989; 김희진, 2001; 신정혜, 2003, 김선주, 2016)가 되며, 또한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심리적, 성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여 새로운

사회적, 직업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 시기는 많은 인간관계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로 가치를 명료화하고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인생계획을 세우는 성숙·친밀성 및 정체성 발달을 기초로 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해야 한다. 인성은 대학생들이 성숙한 성인으로 준비하여 사회로 나가는데 필요할 것이다(여정희 외, 2005).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적응적인 인성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이영애, 2006).

셋째, 기업체에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기업체에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있다. 이는 실력은 기본이고 올곧고, 자신들과 함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성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다수 기업은 신규직원 채용 시 심층면접에서 신입사원의 성실도, 창의력, 직업 정신 등의 요소를 중요시하며 특히, 인성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은 무엇보다 인성이 직장업무와 회사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양승실 외, 2006)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전국경제인 연합회(2004)에 의하면, 기업들이 신입 직원교육 시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은 인성·태도(44%), 의식·기업 문화(22%), 업무 관련 지식·기술(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인성 및 태도, 의사표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및 국제화 감각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혜연, 2006). 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교육기관의 교육에서 실습 및 현장교육, 창의력 배양교육 다음으로 인성교육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박정민 외, 2006).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신입 사원 채용 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 대기업 취업의 주요 키워드가 흔히 일컫는 스펙(Specification)이 아닌 인성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매우 대비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내일신문, 2010).

상기 자료들을 통해 보더라도 대학이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에 집중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취업은 과거와 같은 스펙과 기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은 인성교육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가정, 직장과 사회에서 원만하게 적응하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원하는 인재에 걸맞은 대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이주희 외, 2009; 조명실, 2013; 정원희, 2013).

3) 대학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인성교육 핵심가치·덕목 8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위해 국가 정책 연구보고서와 정책연구개발사업 보고서를 참조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 인성지수 측정을 위해 개발된 선행연구와 교육부에서 KEDI(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개발한 초·중등 학생을 위한 인성측정지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고,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8가지 핵심가치·덕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8가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

2014년 5월 26일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제 19대 국회에 제안되었고, 이

법률안은 정의화 의원(현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총 102명의 국회의원
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전체의 1/3이 넘는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한 법률안으로 2014년 12월 29일에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으며,
2015년 7월 21일 법률 제 13004호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인성교육진
흥법」 제 1조 목적과 제 2조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3>와 같다.

<표 II-3>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제 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
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
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
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
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
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출처 : 법제처(2015). 인성교육진흥법, www.moleg.go.kr.

이 법안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5
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종합계획에 따라 17
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으

며, 전국의 초·중·고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8가지 핵심가치·덕목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는 법률상에 정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으나,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성교육시행령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행정·제도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교육부가 위탁한 연구보고서(정책 2014-위탁-201411022619-00)를 살펴보면 도덕과 6,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성덕목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가치·덕목이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이 8가지로 정확히 제시되고 있으나, 정의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보고서 내용을 보고 추정할 따름이다. 연구자가 관련부처로의 전화 문의를 한 결과 법률에 제시된 내용 외에 세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부 학술연구비(2014 교육정책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범교과 공통 인성 덕목을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8가지 덕목으로 구분하였고, 하위 개념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Dictionary of psychology(Warren, 1934) 등을 중심으로 재정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2014년 8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법에 제시된 8가지 덕목 중 예(禮)와 효도(孝道) 대신, 자아정체감과 공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 이 두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에 대한 내용 및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부 보고서(정책 2014-위탁-201411022619-00, p.250)에 인성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문항을 참고로 하여 덕목에 관련된 개념을 추정하여 제시하고,

인성교육 핵심가치·덕목 내용 및 조작적 정의를 다음 <표 II-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4> 인성교육 핵심가치·덕목 내용 및 조작적 정의

핵심 가치· 덕목	내 용 *	조작적 정의 **
예(禮)	예의 지키기	없음
효도 (孝道)	부모님 잘 모시기	없음
정직	바른 생각과 행동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 ·경제적인 또는 여타의 이익과 같은 타인의 권리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행동 특성
책임	내 할 일 하기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 ·사회적 규약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불이익을 기꺼이 받아들여 한다는 것에 대한 지각
존중	남을 인정하고 높이기	·높이여 귀중하게 대함 ·타인의 가치 또는 지적인 차이를 가져올만한 사회적 체제, 철학, 프로그램, 생활양식 등에 대한 인정
배려	남의 의견 경청하기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씀
소통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합,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환경과의 또는 개인과 개인 간 느낌의 주고받음
협동	함께 생각하고 일하기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둘 또는 그 이상의 객체 간 함께 일함

*출처: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정책 2014-위탁-20141102261 9-00, p.250.

**출처:인성 덕목을 활용한 융합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4 정책연구개발사업), p.38.

인성 덕목을 활용한 융합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2014)에 의하면, 정직과 책임을 개인적 영역, 존중과 배려를 대인 관계 영역, 소통과 협동을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 선행연구에 나타난 인성교육 핵심가치와 덕목

대학생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윤선, 강혜영, 김소정(2013)의 ‘대학생 인성 검사도구 타당화 연구’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적 인성교육론자인 Lickona(2011)의 인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인성검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인성교육프로그램 참관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사의 최초 구인을 결정하였다. 최종 구인은 인지영역, 정의영역, 행동영역을 상위요인으로 설정하여 해당 하위개념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척도 형태이다. 인지영역(23문항), 정의영역(25문항), 행동영역(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96이고,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87 ~ .93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배경이 된 Lickona(2011)는 인성에 대해 통합적이고 명확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는데, 그는 인성이란 인지적 · 정의적 · 행동적 차원을 모두 통합하고 있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인간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옳은 것을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마음은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했다. 따라서 각 차원은 독립적인 하위요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차원이 다른 차원에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각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간의 관계 역시 독립적이기 보다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연구에 나타난 영역별 대학생 인성검사 요인명과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II-5>와 같다.

<표 II-5> 대학생 인성검사 요인명에 대한 조작적 정의

영역	요인명	조작적 정의
인지적 영역 (앞) (23)	도덕적 자기 인식	주어진 상황에 내재된 도덕적 문제 및 도덕적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
	도덕적 가치를 앎	세대를 통해 전수되어 도덕적 가치를 알고, 또 그것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안다.
	도덕적 추론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도덕적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의사결정	반성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도덕적 자기지식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찰과 함께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강화/보완 방법을 알고 있다.
정의적 영역 (느낌) (25)	양심	옳은 것을 행하려는 의무감을 느낀다.
	자기존중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감정이입	인지적 요인의 입장 채택의 감정적 측면으로서 인간의 공통된 휴머니티에 반응한다.
	선을 사랑	선을 좋아하고, 악을 멀리한다.
	자아 통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행동적 영역 (실행) (12)	겸양	인지적요인의 도덕적자기 지식의 감정적 측면으로서 진리에 대한 진실한 개방성,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교정하고자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
	역량(의지)	도덕적 판단과 감정을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 동기화 시킬 수 있다.
	습관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 출처: 이윤선, 강혜영, 김소정(2013). 대학생 인성 검사도구 타당화 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31. p. 269 재정리

두 번째, 김명순과 김성희(2012)는 대학생용 유교적 인성 척도 개발을 하였으며, 검사지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 형태이며, 자기인지(10문항), 자기행동(7문항), 대인행동(10문항), 대인인지(7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88으로 보고되고 있고,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73 ~ .89로 나타났다. 유교적 인성척도는 인성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고, 이를 ‘자기인지’, ‘자기행동’, ‘대인인지’, ‘대인행동’ 등 4개 요소로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내용과 문항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6>과 같다.

<표 II-6> 유교적 인성 척도의 각 요인별 문항내용과 문항수

영역	요인명	문항수
자기(수기)	자기 인지	10
	자기 행동	7
타인(치인)	대인 인지	10
	대인 행동	7

* 김명순, 김성희(2012). 대학생용 유교적 인성 척도 개발. 교육학연구, 50(1).

세 번째는 서경혜 외 7인(2013)이 미래에 교사가 될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직 인성 평가도구를 개발한 연구이다. 교직 인성 개발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교직인성을 내적, 사회적, 공동체적 인성의 통합체로 정의하고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의 덕목으로 자기 조절, 반성적 실천, 지속적 배움, 존중, 의사소통, 협력, 윤리의식, 정의감,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연구에 나타난 예비교사 교직 인성 영역과 구성요소 및 문항을 다음 <표 II-7>에 제시하였다.

<표 II-7> 예비교사 교직 인성 평가도구

영역	구성 요소	문항
내적 인성	자기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 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한다.
	반성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나의 학습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한다. • 나는 나의 교육활동(예컨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교육봉사, 교육실습, 수업 시연 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한다. • 나는 타인의 조언과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한다.
	지속적 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배움에 대한 열의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 나는 최신 교육이론, 교수법, 교과지식 등에 늘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노력한다. • 나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교내외 다양한 활동(예컨대, 교육봉사, 학회 활동, 교육관련 사회활동 등)에 참여 한다.
사회적 인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타인의 감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한다. • 나는 나와 다른 생각, 관점, 의견 등을 존중한다. • 나는 학습 요구, 능력, 양식, 속도 등에 있어 개인차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 • 나는 소통의 목적, 상황, 대상 등에 맞게 적절한 언어, 화법, 소통방식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 •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의사소통한다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팀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의 책임을 다해 노력한다. •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잘 조율한다.
공동체적 인성	윤리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나는 개인적 어려움이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 나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한다.

정의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교육과 관련된 편견, 차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 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나는 교육을 통해 사회 정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
책임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 나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 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예비교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 출처 : 서경혜, 최진영, 노선숙, 김수진, 이지영, 현성혜(2013). 예비교사 교직인성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1).

네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전재선과 최종욱(2012)이 개발한 유아교사의 인성 자기평가 도구이다. 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측정도구는 아니지만 성인을 위한 인성 측정 도구이므로 예비사회인인 대학생이 실천해야 할 인성 덕목 및 가치를 찾는데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 연구는 유아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평가지는 전체 80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Likert 척도 형태이다. 인간애, 긍정적 자아 개념,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인성으로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하위요인인 이타심, 용서, 자기개발, 주도적 자아성취, 자기조절, 의사소통, 공감적 이해, 직무수행태도, 유머·위트, 사회문제인식, 창의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93이다. 범주별 신뢰도는 .86 ~ .88 분포를, 요인별 신뢰도는 .87 ~ .88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의 요인구성은 다음 <표 II-8>과 같다.

<표 II-8>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의 요인구성

범주	요인	내용
인간에(10)	이타심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음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향
	용서	
긍정적 자아개념(13)	자기개발	교실상황과 교사로서의 삶에서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의 방향과 목표를 조정하는 지속적으로 변화 가능한 특성
	주도적 성취동기	
사회관계(20)	자기조절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정서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
	원만한 의사소통	
	공감적 이해	
직무수행(13)	직무수행 태도	구성원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며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기술을 의미
창의·인성(24)	유머·위트	개방성, 다양성과 같이 창의성과 인성의 동일한 요인 이면서 유머, 협력, 사회문제인식과 같이 21세기의 바람직한 인성특성이 창의성 개발로 이어지는 상호 동반 효과가 높은 자질로 정의
	사회문제 인식	
	창의적 성향	

* 전재선, 최종욱(2010).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2(1).

마지막으로, 교육부 위탁 연구 개발된 KEDI(2013, <http://www.moe.go.kr>) 「인성지수 개발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성지수를 개발하였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했던 ‘인성교육 비전수립 및 실천방안 연구’에 근거하여, 인성의 하위영역으로 ‘도덕성’, ‘사회성’, ‘감성(정서성)’을 설정하였으며, 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성’은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

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도덕성’의 세부영역으로는 정직, 책임, 윤리가 포함되었다. ‘사회성’은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 파악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소통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세부영역으로는 배려(봉사)와 공감으로 구성되었다. ‘감성(정서성)’은 자신의 강점, 약점, 흥미, 능력 등을 파악하며,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 실행하는 능력을 말하며, 세부영역은 긍정적 자기이해와 자기 조절이다. KEDI(2013)에서 개발된 인성 요인 구성은 다음 <표 II-9>와 같다.

<표 II-9> KEDI(2013) 개발된 인성 요인 구성

영역	구성요인	내용
도덕성	정직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마음과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책임	자기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수행하려는 태도
	준법 (윤리)	규칙, 질서, 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와 윤리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사회성	공감 (배려)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능력 또는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며 보살피주려는 행동
	소통 (개방성)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뜻, 생각, 감정을 서로 이해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타인과의 차이(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협력 (봉사)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활동을 수행하는 태도 혹은 자기 스스로 우러난 마음에서 타인을 도와주는 것
감	긍정적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긍정

성(정서성)	자기이해	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평가(정도)를 반영한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판단
	자기조절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함으로서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절제하고 인해하는 성질 혹은 특성

* 지은림 외 5(2013). 인성 지수 개발 연구(<http://www.moe.go.kr>)

KEDI(2013,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인성지수 척도는 표본 학생을 초, 중, 고등학생으로 하였기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경우 대학생이 속한 근접 환경 중 크게 달라지는 학교환경에 대한 요인을 추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각 설문 항목마다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문항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KEDI,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답변). 그러나 본 연구자는 아직 대학생이 확장된 청소년기에 있으며, 질문하는 문항에 대한 문장의 수정이 있어야 할 뿐 그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연구자의 견해를 갖고 있으므로 대학생 인성실천도를 구성하는 인성 덕목 및 가치를 연구함에 있어 KEDI(2013, 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인성지수 척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인성교육 핵심가치·덕목과 기존 인성 구성요인과의 관계

대학생의 인성실천도를 구성하는 덕목을 연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인성의 구성요인들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은 다음 <표Ⅱ-10>과 같다.

<표 II-10> 기존 인성교육 구성요인과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와의 관계

출처	구성요인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							
		예	효	정 직	책 임	존 중	배 려	소 통	협 력
이 윤 선 , 강 해 영 , 김 소 정 (2013)	도덕적 자기 인식			●					
	도덕적 가치를 알	●	●	●		●			
	도덕적 추론			●					
	의사결정			●	●				●
	도덕적 자기지식			●	●				
	양심			●	●				
	자기존중감			●		●			
	감정이입					●	●	●	
	선을 사랑			●	●				
	자아통제			●	●				
	겸양			●		●	●		
	역량(의지)				●				●
습관	●			●	●	●			
김 명 순 과 김 성 희 (2012)	자기 인지			●	●				
	자기 행동			●	●				
	대인 인지	●	●			●	●	●	●
	대인 행동	●	●			●	●	●	●
전 재 선 과 최 중 욱 (2012)	이타심					●	●		
	용서						●	●	●
	자기 개발				●				
	주도적 성취동기				●				
	자기조절				●				
	원만한 의사소통						●	●	
	공감적 이해						●	●	
	직무수행 태도				●				●
	유머·위트						●		
	사회문제 인식					●			●
창의적 성향				●			●		
선경혜 외	자기조절				●				

7인(2013)	반성적 실천				●			
	지속적 배움				●			
	존중					●		
	의사소통						●	
	협력							●
	윤리의식			●				
	정의감			●				
지은림 외 5인(2013)	책임감				●			
	정직			●				
	책임				●			
	준법(윤리)	●	●	●		●	●	
	공감(배려)					●	●	●
	소통(개방성)	●				●	●	●
	협력(봉사)					●	●	●
	긍정적 자기이해					●		
	자기조절			●	●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인성의 구성요인들과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된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의 8가지 덕목은 대학생이 실천해야 할 인성의 기본 덕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는 이 8가지 핵심가치·덕목을 기준으로 대학생이 인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인 인성중요도와 인성을 실천하는 인성실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인성실천과 생태체계이론

1) 생태체계와 인성

생태체계는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는 유기체와 환경의 종합체(John

Firebaugh 외, 1991)이다.

생물학의 한 분야로 발전해 온 생태학(ecology)은 인간발달과 생활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모든 학문분야에 적용되어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사회과학자들은 생물학에서의 정의와는 다르게 인간 생태학 또는 사회생태학이라는 용어로 사용(홍정미, 2008)하고 있다. Cermain(1973)은 ‘유기체와 환경이 적응하며 맞추어 가는 것과 동시에 역동적인 평형과 상호작용을 성취해 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

개인의 환경이 러시아 인형 세트처럼 각각의 구조가 그 다음의 구조 안에 꼭 맞아 들어가는 한 세트의 구조라고 묘사한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 연구에 있어서 성장하는 유기체와 그 유기체가 실제 거주하고 성장 변화하는 환경간의 일생동안 일어나는 조절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광범위한 접근법인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인간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항상 변화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으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탈 맥락적(development-out-of-context)이 아니라 맥락 내(development-in-context)의 인간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onfenbrenner(1979)는 개인을 둘러싼 생태적 환경체계로 크게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 체계, 거시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환경은 겹겹이 중첩된 구조(nested-system model)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상학적으로 한 가지 구조 안에 다음 구조가 각각 끼어들어가 있는 동심원적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그림 II-1). 인간의 심리적응과 발달은 이들 생태체계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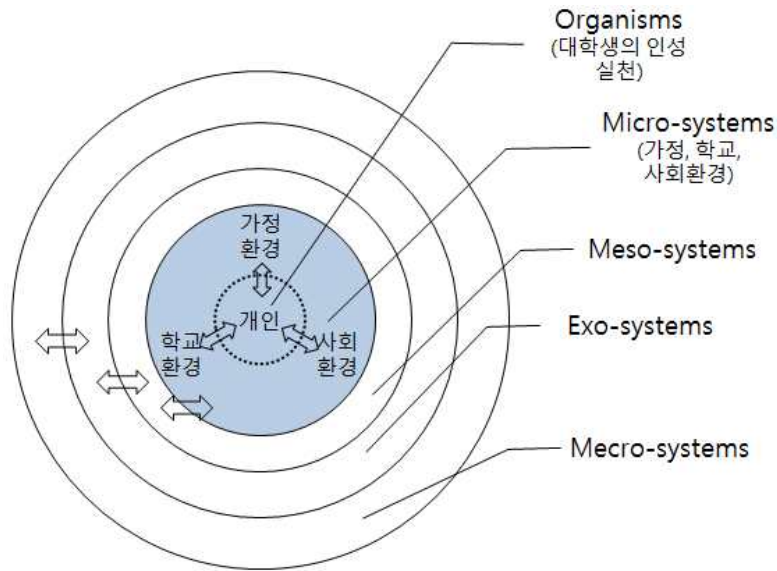
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각각의 생태학적 환경체계는 하위 환경 체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각 유기체의 성장과 발달 및 적응 과정에서 여러 환경 체계들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

개인의 행동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볼 때, 개인 자신이 지니는 변인을 유기체 변인이라 할 수 있고,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특성들은 각 유기체의 성장과 발달 및 적응 과정에서 여러 환경 체계들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체 변인으로는 각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으며 한 개인 자신이 지는 것으로서 인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인성중요도, 결과변수로서 인성을 실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성실천도로 구성하였다.

미시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독특한 물리적·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으로 정의된다. 즉 개인이 반응하는 대상이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초월한 훨씬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된다.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그 장면(setting)에서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의 본질, 그리고 그 관계가 직접 개인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발달하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영향들이다. 이러한 즉각적인 환경 내에서의 상호 관계들의 복합체계를 미시체계라고 부르며, 이는 개인에 따라 개인의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 예로는 가족, 학교, 친구, 이웃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한 개인과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개인적,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상호교류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체계를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로 구성하였다. 가정환경체계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학교환경체계는 인성교육의 창의적 교수법,



<그림 II-1>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 모형

*출처:Bronfenbrenner,U.(1992).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MA:Harvard Univ.Press. 연구자 재구성

수업참여, 수업 외 참여, 교수의 정서적 지지를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사회환경체계는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를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 그 예로서, 아동의 경우는 가정, 학교와 이웃, 동료 집단 사이의 관계들이며, 성인의 경우는 가족, 직장, 사회생활 사이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며, 발달하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확대된다고 하였다.

외 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발

달하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며,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순위 형제가 다니는 학교 학급, 부모의 친구 조직망, 지방 교육청의 활동 등이 포함된다.

거시체계는 기본적인 신념체계가 이념과 함께 하위체계들(미시체계, 중간체계, 외 체계)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으로서 하위문화 수준이나 문화전반의 수준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특성이다. 그 예로는 사회규범, 문화, 정치, 정책, 가치관 등과 같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세계 속에 내재되어 관습과 일상생활 습관으로 표현되는 이데올로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유기체인 개인은 여러 체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이와 같은 유기체가 지닌 특성 및 유기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각 개인에게 인생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환경과의 상호관계와 영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현아 외(2013) 연구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가정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인성교육의 일차적인 환경으로 가정과 부모의 역할에 주목하고, Bronfenbrenner의 인간생태학적 모델에 따라 가정과 미시적, 거시적 사회체계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인성 함양과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측 모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및 Bronfenbrenner(1979)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변

수인 대학생 인성실천도를 유기체 요인으로,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으로 유기체계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미시체계 요인만으로 구성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 연구하고자 한다.

2) 인성과 가정환경체계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속되는 사회이며, 사회생활의 기본으로 부모 형제간에 평생을 두고 상호간 인간관계를 통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일차적인 환경이다(정헌주, 2006; 송인섭 외, 2006; 김한솔, 2012; 이현아, 2013).

또한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우는 곳이며, 사회적 어떤 집단보다도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개인의 윤리적 태도나 가치체계 형성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가정의 생활환경은 개인의 의식이나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김창희, 2014).

이처럼 가정은 유아기로부터 아동기와 사춘기를 거쳐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인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으로, Bloom(1964)은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서 많은 것을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성격형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환경은 가정환경이라고 강조하였다(박미연, 2003 재인용).

가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 환경이며,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이 갖는 최초의 인간관계이며, 이러한 관계에 있어 성장 초기에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는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의하여 성격 특성이 결정될 수 있고, 사회 적응방법 등에

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인간의 성격형성 및 경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가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가정에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인간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가정환경의 교육적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김재은, 1974; 박미연, 2003).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가정환경체계는 인간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시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놓인 대학생에게도 중요한 환경임을 알 수 있으며, 가정 내의 환경에서는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및 소통에 대해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인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실천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인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많은 연구들이 있다(윤지영, 2001; 전재천, 2000; 장원재, 2003; 정소희, 2007; 이혜진, 2013). 민주적·안정적·애정적·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들은 자기 존중감이 높고, 정서지능·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활발하고, 우호적이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권순명, 1993; 박은미, 1999; 최혜영, 2001; 권도영, 2003). 반면 엄격한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의 비수용적, 거부적인 양육태도 및 돌봄 부족, 그리고 과보호·완벽주의적인 강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적개심과 비협동성을 가져오게 하며, 반사회적인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며, 정신질환 또한 우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

고되었다(정원식, 1997; 최혜영, 2001; 김재엽 외, 2008).

이렇듯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온정적이고 애정 어린 긍정적 양육 태도를 갖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인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현주(2006)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인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방적이고 수용적, 자율적 일수록 아동의 인성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최강준(2003) 연구에서도 아동이 부모 양육태도를 자각하는 정도에 따라 자아개념,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에 가정이 사회생활의 출발을 위한 학습의 장이며 인격형성의 장으로써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자녀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황보영란(1998)은 가정환경 변인에서는 가족응집력이 높은 가정의 아동이,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인 경우와 애정적인 경우의 아동이 인성변인 중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민주적일 때 학생들의 인성이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미자(2002)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정적이고 수용적 태도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Lapsley, Rice & Fitzgerald(1990)는 부모와 안전한 애착이 이루어진 대학생은 개인적, 사회적 정체감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고하였다(최민정, 2011).

따라서 가정환경 내의 요인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이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 정도와 인성을 실천하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환경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연구에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인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이며, 첫 환경이 가정임을 생각해 볼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가 배우는 의사소통의 모델이 될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가 전달되며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와 행동, 정서의 내면화 과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 신념, 감정 및 경험 등을 공유하도록 돕고(장해순 외, 2005), 서로의 태도나 생각 등을 전달시켜 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의사소통은 자녀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적응에 기여하게 된다(조은경, 1994; 우임덕, 2014). 또한 이영주(2002)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아 어머니의 촉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이 이해되고 수용될 때 자녀가 대인관계가 사교적이고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여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느낄 줄 알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노성향(1994)의 연구에서

도 부모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부적응적인 행동인 불안, 우울, 비행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 및 유형에 대학생들의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적응, 사회관계성향과의 관계,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및 대인관계 유능성, 자살위험성간의 관계,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자은, 2002; 김광림, 2005; 최소영, 2007; 윤형식, 2010; 김정미, 2014; 송성성, 2014).

반면 바람직한 가족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특히,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의사소통, 강압적이며 권위적인 양육행동, 거부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통제적 태도를 보일 때, 자녀들은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내적 갈등을 겪고, 정서적 해독능력이 감소되며, 정서 조절이 어려워 공격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이원영, 1998; 신자은, 2002; 이순비 외, 2010)가 있다.

최근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를 연구하는데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되는 대표적 개념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다(박성연, 2005; 신건호, 2004; 한세리, 2007; 정택용, 2016).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폭넓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며,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감정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가정환경 내의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대학생이 인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의 정도와 인성을 실천하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되므로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3) 인성과 학교환경체계

가정의 교육 기능 약화로 인하여 개인이 시민사회를 향해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특히, 인성교육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가족은 맞벌이, 한 부모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족 단위로 공유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가정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덧붙여 현재 부모로서의 교육적 기능담당의 책임성이 약화되면서 가정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가치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왕석순, 2004; 현주 외, 2009).

학교환경은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학교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일정한 목적 하에 전문적인 교수자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자가 학습자의 내적, 외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또한 이광성(1997)은 학교환경을 교육 시설과 수업의 조직 형태, 교수자, 수업활동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정문성(1996)은 교수자의 지지와 참여성으로, 성은현 외(2012)는 교수자의 태도 및 심리적 요인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Moos와 Otto(1972)의 연구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대학생들은 학교 내 수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학교수업환경체계는 학생들의 태도나 기분, 행동, 자신감, 안정감 등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인성과 창의적 교수법

교수법과 인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혀낸 연구는 매우 적다. 그러나 교수법과 창의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연구를 살펴보면, 교수법이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내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Newman(1991)은 자유롭고 독창적인 사고의 기회가 주어지는 개방적 수업분위기가 학생들의 고등사고력 향상과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으며, 신중호 외(2013)는 수업환경의 조성을 통해 창의성이 계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용교(2009)의 경우에는 수업활동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사고력이 신장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권순범, 남동수, 이태욱(2012)도 강의식 수업보다 문제 중심의 프로젝트학습을 진행한 창의적 인성이 수업결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선주(2013)는 수업 중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높이는 학습이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과 교과내용에 대한 태도를 이전보다 상승하게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성교육은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교수자 위주의 통제된 수직적인 분위기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허은영(2009)도 대학생의 진로수업 연구를 통해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에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며, 교수자가 학생 개인 의견을 존중하며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고 학생과 권한을 공유하며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장려하면 자기 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냈다. 이러한 자율적인 교수법과 수업중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수업환경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다(유경훈 외, 2010; 허은영,

2009; 장경원 외, 2009; 정영란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이어 창의적 교수법이 대학생의 인성중요도와 인성실천도와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인성과 교수의 정서적지지

대학 생활은 주로 수업 수강과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다양한 교수자들을 만나게 되며,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수업과 활동들의 방법, 분위기, 지원 정도와 함께 학습하는 교수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대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 뿐 아니라 교수자의 다양한 견해를 접하기도 하며 나아가 자아상을 수립하고 가치관을 형성한다(유경훈 외, 2009; 장경원 외, 2009; 백가영, 2015).

또한 유경훈 외(2009)는 대학생의 수업환경 연구에서 교수자와의 긍정적 심리적 관계가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학생의 교수자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대학생 인성실천도 간에도 서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인성과 학교생활참여도

앞에서 언급한 Berkowitz(2007) 연구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효과 중 하나로 학업 생활 증진을 들었다. 인성교육을 잘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행동에서 출석률 상승, 학교규칙 준수, 학급활동에의 참여도 증진을 하였고, 학교에 대한 애착이 높아졌으며, 선생님에 대한 태도에서도 신뢰와 존경심이 좋아졌다. 또한 학교에서 잘 해보겠다는 동기부여와 함께 성취 지향

적인 목표도 세우고, 전반적인 집중력과 성적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윤조(2002)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학업적 적응과 관련이 되는 요인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개념 즉, 긍정적인 자기평가, 긍정적인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등을 들었다.

이에 한유경(2012)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에서,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라고 보고, 학생자치활동(학생회), 동아리활동 등 봉사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세부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학생생활참여도가 대학생의 인성중요도와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인성과 사회환경체계

인성교육은 가정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육에 대해 그렇듯이 사회는 커다란 배움의 터전이다.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은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를 가정과 학교를 제외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집단을 사회라 정의할 수 있고, 본고는 이런 사회에서 친구 및 기타 사람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인 도움과 원조로 대학생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사회환경체계라 한정시켜 명명하였다.

Betz(1989)는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의 형태를 사회적 지지라 하였고, 한국교육심리학회(2000)는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완시켜 주는 행

위로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지지자로는 가족구성원, 친구, 교사 등을 들었다(이종원, 2014 재인용).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 즉 사랑이나 존중, 인정, 물질적인 도움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Kahn, Antonucci(1980)은 사회적 지지란 애정이나 긍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포함한 대인관계라고 하였으며, 또한 House(1981)는 정서적 관심이나 원조,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자기 평가를 포함한 대인관계라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안녕으로부터 정신장애, 스트레스 사건, 성폭력, 가족해체, 알콜 및 약물 남용, 이혼, 사별, 노인성 치매, 암, 에이즈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용되며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이원숙, 1994),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지원을 받게 되면, 보호적 또는 완충적 효과 인해 스트레스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다(Kraose, 1987; 엄태완 외, 2008).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으면 정서표현갈등이 낮았으며(조수경, 2009), 부족할 때에는 우울, 외로움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다고 하였다(김옥수 외, 2003; 김정운 외, 2009; 박미경 외, 2002; 성미혜 외, 2011; 왕명자 외, 2004; 전신현, 2012 재인용).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오윤경, 2012; 정은희, 2003; 최슬기, 2012)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친구 및 기타 사람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인 지지는 대학생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인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실천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인성과 친구의 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일생동안, 개인의 지속되는 발달을 통해 지지의 원천이 변화된다(신혜정, 2005).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높은 단계이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약화됨(Furman, 1989)으로써 가족으로부터의 영향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친구관계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2) 인성과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

대학생 시기는 더욱 확대된 사회적 관계를 가져 사회적 지지도 확대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조수경, 2009).

특히,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사회적 지지는 온라인에서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SNS는 오프라인의 가까운 사이는 물론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로써 사회적 지지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다(홍누리 외, 2014). SNS상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SNS 상의 사회적 지지는 여자대학생에게 우울에 대한 완충작용에 영향력이 있고(전신현 외, 2014), 또한 사회불안과 정서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홍누리 외, 2014). 또한 SNS에서의 자기노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높은 자존감과 관계가 있고, 높은 자존감은 삶에 대한 만족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Vokenburg et al., 2006).

Valkenburg et al.(2006)은 SNS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친구를 보유하고 있고, SNS의 이용은 자존감이나 심리적 웰빙과 긍정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teinfield et al.(2007)은 페이스북 사용강도와 사회자본 형성 간의 강력한 관련성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토대로 SNS는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삶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SNS 상의 사회적지지, 그 외 확대된 사회활동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확대된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는 인성중요도와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3. 대학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

대학 인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대학 인성교육의 실태나 인식을 파악(전제아, 2005; 양혜련, 2006; 강보라 외, 2013; 한국교육개발원, 2013)하거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이형득, 1996; 홍기철, 1999; 이호중 2002; 이영애, 2006; 노이경 외, 2007; 서혜석 외, 2009, 이주희 외, 2009; 고시용 외, 2010; 박은민, 2012), 인성교육 고찰 및 활성화에 초점(김태현 외, 1998; 양혜련, 2006), 인성덕목 분석(류청산 외, 2006) 및 대학생을 위한 인성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전재선, 2010; 김명순, 2012; 서경혜 외, 2013; 이운선 외, 2013) 등에 대한 연구이다.

대학 인성교육의 실태나 인식을 파악한 연구를 보면, 전제아(2005)는 한국 대학에서의 인성 교육 과정 사례 분석에서 서울시내 대학교 가운데

인성 교육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4개 대학교를 선택하여 인성 교육 과정 이념, 인성교육과정 운영방법, 인성교육과정 강의 및 프로그램 명칭 및 종류, 인성교육과정 강의/프로그램 내용 및 성격의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 결과, 대학 인성 교육 과정의 특징으로 지성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덕성’ ‘정서’로서의 인성이며,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교양으로서 인성 교육을 전교생 공통 교양 교육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리더십, 사회봉사와 각 학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일련의 인성 교육 강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학문적’ 강좌를 변형하기도 하되 인성 교육의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고유한 학문 영역을 지정하지는 않고, 이론적 체계화보다는 실습이나 체험을 핵심적인 교수 방법으로 선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양혜련(2006)은 8개 대학의 인성교육과정의 실제현황 및 사례를 파악하여 대학에서의 적용방안에 대해 8가지 제언을 하였다.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본 강보라 외(2013)는 ‘인성 교육’과 관련한 개별적 과정 혹은 부서나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국내 3군데 대학(서울여자대학, 대구가톨릭대학, 경희대학)과 미국에 있는 4개 대학(펜실베이니아주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클라라 대학, 뉴욕포담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어떠한 인성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였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내의 경우 경희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들이 이제야 인성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유일하게 개교 이래로 꾸준히 인성 교육을 해 온 교육기관은 서울여자대학교와 대구 카톨릭대학교이며, 한국 대학 대부분이 맹목적인 취업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학생을 배출시키는 데만 열중이 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외국대학의 경우도 인성 교육 프로그램 또한 그 현황이 미미

하여, 국내외 모두 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의 크기에 비해 그 교육 현황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2013) 연구에서는, 6개 초·중등학교 인성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 인성교육 동향 및 우수학교 사례도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전담 부서의 필요성, 대표적인 인성교육 관련 단체나 기구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활동의 조직화 및 효율적 지원, 학교교육 전반을 통해 인성교육이 실현되도록 학교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파악에 대한 연구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경험과 필요성을 살펴본 이종현(2016)의 연구에 따르면 과반수가 중·고등학교 때 받은 인성교육이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었고,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대학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성명희 외(2015) 연구에는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 존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났다.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김순환 외(2014) 연구에서는 교사의 가치관이 중요한 만큼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초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한 집단상담활동의 형태로 대학중도탈락자 예방이 그 목적(이영애, 2006; 노이경 외, 2007, 서혜석 외, 2009)이었다. 그 후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양강좌를 통해 주로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자기능력지각(이주희 외, 2009), 자아효능감과 삶의 만족도(고시용 외, 2010), 심리·사회 성숙향상(박은민, 2012), 자존감 및 자기인식 그리고 자기효능감(주영애 외, 2015), 인성지수(고명희 외, 2015)와 자아정체감(박은

민 외, 2016) 등의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 효과성은 모두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성에 대한 고찰 등을 통해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를 살펴보면, 박세정 외(2014)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인성교육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여 대학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및 부모, 교직원 등의 구성원 대상의 인식조사와 대학마다의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현황, 효과 등에 대한 양적인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차봉준(2015)은 S 대학의 인성 교과목 개설을 중심으로 본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과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에서 필요한 인성교육이 보다 철학적 인식에 기반을 둔 인성을 다루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성을 깊이 있게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손승남(2014)도 자기 몸과 영혼을 돌보고, 자기 내면의 힘을 강화하는 주체역량 강화 방법과 자기를 둘러싼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global)사회에서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시민 역량을 길러주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성 덕목 분석을 살펴본 연구는 광병선 외(1997)는 인성을 기반요인과 발달요인으로 나누어, 기반요인으로 세계에 대한 감수성, 정서적 안정, 자기 존중감으로 보고, 발달요인은 자아실현의지, 성취효능감, 도덕적 성숙으로 보았다. 또한 강선보(2008)는 인성의 구성요소로 관계성, 전인성, 도덕성, 생명성, 영성, 창의성, 민주시민성을 인성의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박성미 외(2012)는 인성의 덕목을 크게 개인적 가치, 대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학생 인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윤선 외(2012)는 통합적 인성교육론자인 Lickona(1992)의 인성을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차원을 모두 통합하고 있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인성 검사도구를 개발하였고, 김명순 외(201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교적 인성척도를 만들어 인성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전재선 외(2012)는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유아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서경혜 외(2013)에 의해 개발된 예비교사 교직 인성 평가도구는 교직 인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의 교직 인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임현진(2014)은 창의·인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위와 같이 대학 인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김정선 외, 2016) 실질적으로 대학생 인성실천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측 모형은 부족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 인성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연구와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의 규명 및 상관관계에 분석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태연구는 대학의 교육철학, 인성수업의 방향성, 인성수업 구조 및 수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크게 목적적, 구조적,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연구는 생태체계이론의 관점을 통하여 대학생의 주위 인접환경인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대학인성교육의 실태연구

1) 연구문제

대학 인성교육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목적적 측면에서 대학의 학교의 교육철학과 인성과목에 대한 수업의 방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구조적 측면에서 수업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내용적 측면에서 수업특징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는 대학 인성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4년제 13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인성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분석 선정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인성 교육 3.0>사업에 선정된 4개 교과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체험교육과 연동된 인성 함양 교과목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의운영을 지원하고자 <인성 교육 3.0>사업을 실시, 그 결과 2014년도에는 4개의 교과목과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 되었다. 사업단별 차등 지원금을 지급받아 선정된 교과목은 반드시 2년(4개 학기) 이상 책임자와 공동 강의자 소속의 대학에서 개설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연구자는 2014년 2학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4개 교과목을 선정하여 대학에서의 인성 교육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로 삼았다. 다음 <표 III-1>에는 2014년 <인성교육 3.0>사업에 선정된 4개 대학의 체험 교육과 연동된 인성함양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표 III-1> 2014년도 <인성교육 3.0>사업을 통해 개발된 4개 대학 교과목

대학교	인성교과목 명	비고
서울대	환자-의사-사회의 관계 내에서의 다면 인성교육	과목
성균관대	성균 인(仁)Dream	과목
인하대	나눔의 공학	과목
청운대	온고이지신인(溫故而知新人)	과목

* 출처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http://konige.kr>

둘째, 인성관련 연구자료, 신문 및 저널에 소개·검색된 자료 등을 통한 9개 대학 인성관련 교과목

본고는 연구자료 및 신문자료, 저널 검색 및 연구 대상 해당 학교 등을 중심으로 파악된 서울 소재 5개 대학, 대전·충남 소재 3개 대학과 경상도 소재 1개 대학을 선정하여 각 대학의 인성교육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 <표 III-2>에는 추가로 조사된 대학과 인성관련 대표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표 III-2> 9개 대학과 각 대학의 인성교육 대표 교과목

대학교	인성교과목 명	과목 형태
건양대	밥상머리 교육	교과목
경희대	인간의 가치 탐색	교과목
대전대	글로벌시대의 예절과 인성	교과목
동덕여대	동덕인성교육	교과목
서울여대	바름인성교육	교과목
성신여대	성신인	교과목
연세대	균형 있는 '성'인식 함양을 위한 RC포럼	비교과목
중부대	대학생활지도 및 인성	교과목
진주교대	품격을 높이는 예비교사 인성 프로그램	비교과목

3) 자료수집 방법

각 대학의 인성교육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은 크게 현황연구, 문헌연구 그리고 전화면접방법을 이용하였다.

현황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수집방법으로 2014년 <인성 교육 3.0>사업에 선정된 4개 대학에 대해 한국교양기초교육원(<http://konige.kr>)에 탑재된 자료를 중심으로 인성 교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및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각 대학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인성교육 운영현황 파악, 학교편람을 통한 인성교육 관련 강의 개설 여부와 강의의 비중(학점수, 필수/선택), 각 과목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연구로는 논문에 의해 인성교과목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된 교과목 자료와 저널(e-두루넷) 및 신문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검색과 학교편람에서 강의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대학 교육 과정 개설을 담당하는 실무자와의 전화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4) 분석방법

대학의 인성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 전제아(2005), 한국교육개발원(2013),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4)의 분석방법을 연구목적에 맞게 지도교수의 조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인성교육의 목적적 측면, 구조적 측면, 내용적 측면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목적적 측면에서는 학교 건학이념 또는 대학철학, 인성과목 수업목표를 중심으로 교육목적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대학

인성교육의 교육구조로 교육을 받는 대상(학년), 과목의 형태를 중심으로 교육구조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과목명 및 과목내용, 수업방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2. 대학생의 인성실천도 조사연구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대학생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의 규명 및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III-1>과 같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는 인성중요도와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성중요도 및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 중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인성중요도 및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는 인성중요도와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1.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 중 창의적교수법은 인성중요도 및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 중 수업참여도는 인성중요도 및 인

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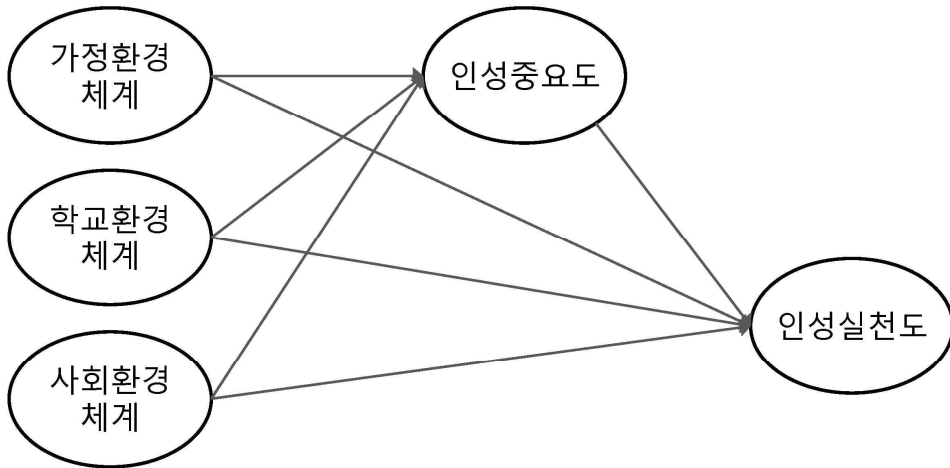
2-3.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 중 학교행사참여도는 인성중요도 및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4.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 중 교수의 정서적 지지는 인성중요도 및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는 인성중요도와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3-1.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 중 친구의 정서적 지지는 인성중요도 및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 중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는 인성중요도 및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III-1> 제 환경체계 변인과 인성실천도 관계의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2) 자료수집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에서 인성관련 수업 수강 경험이 있는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 문항을 검토하기 위해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인성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광역시 소재 D 대학의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소재 대학 2곳과 광역시소재 대학 2곳에서 인성관련 과목을 수강 중이거나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강의시간 및 학생들의 자유 시간에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대학생의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기입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기입하고 즉시 회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485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조사대상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다음 <표 III-3>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485명으로 연구 대상자 중 여성은 278명(57.3%), 남성은 207명(42.7%)로 여자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1학년 116명(23.9%), 2학년 130명(26.8%), 3학년 146명(30.1%), 4학년 93명(19.2%)으로 3학년이 약간 많으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대학교소재지는 특별시 121명(24.9%), 광역시 364명(75.1%), 대학교유형은 남녀공학 443명(91.3%), 여학교 42명(8.7%)으로 연구 대상자는 대학교가 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대학교유형은 남녀공학이 많았다. 전공은 인문사회 97명(20.0%), 자연공학 224명(46.2%), 예체능 119명(24.5%), 기타 45명(9.3%)으로 자연공학 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이 다니는 대학교의 설립유형은 국공립 239명(49.3%), 사립 246명(50.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표 III-3>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N=485)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여자	278(57.3)	학교유형	남녀공학	443(91.3)
	남자	207(42.7)		여학교	42(8.7)
학년	1학년	116(23.9)	전공	자연공학	224(46.2)
	2학년	130(26.8)		예체능	119(24.5)
	3학년	146(30.1)		인문사회	97(20.0)
	4학년	93(19.2)		기타	45(9.3)
학교소재지	특별시	121(24.9)	학교설립유형	사립	246(50.7)
	광역시	364(75.1)		국공립	239(49.3)

4) 조사도구개발

(1) 설문지 구성 내용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성중요도, 인성실천도 및 대학생이 인접한 각 환경체계의 탐색을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우선 표지에서는 인사말과 함께 연구의 개괄적 내용을 알리고 응답의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강조하였다. 설문지 내용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 대학생들의 인성중요도와 인성실천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학적인 특성 및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묻는 문항

을 제외한 나머지 설문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측정하였다.

<표 III-4> 설문지 구성 요소와 문항 수

구성 항목		문항 수	측정방법
일반적인 사항 및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7	5점 Likert 척도
가정환경체계	부모의 양육태도	1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8	
학교환경체계	창의적 교수법	6	
	대학생활 참여도	5	
	교수의 정서적 지지	2	
사회환경체계	친구의 정서적 지지	2	
	사회관계망에서 지지	2	
인성실천도	개인 덕목	2	
	가정 덕목	4	
	대인관계 덕목	6	
인성중요도	개인 덕목	2	
	가정 덕목	4	
	대인관계 덕목	6	

(2)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 포함된 각 요인의 하위변수에 대한 단일차원(Unidimensional ity)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베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내적일관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① 가정 환경 체계

i)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종승·오성심(1982), 임선화(1988) 등이 Schaefer(1959)의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지도교수의 조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이 자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설문지 내용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애정과 감정 대응으로 명명하였다. ‘애정’으로 명명된 첫 번째 요인은 대학생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감정 대응’으로 명명된 두 번째 요인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모의 감정에 따라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양육 태도 유형이다. 각 문항 형식은 1점에서 5점까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덜 감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함을 의미한다. 감정 대응 문항들은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의 양육 태도 검사의 구성변수들의 총 분산은 61.4%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0.8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II-5>와 같다.

ii)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Barn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PACI: Parent do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청소

년 자녀용 설문지(doescent Form)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민혜영(1990)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지도교수의 조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된 문항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측정 후 최종 8문항을 추출하였으며, 2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각각 개방형 의사소통, 폐쇄형 의사소통으로 명명하였으며, 개방형 의사소통(open-communication)은 상호간의 감정표현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또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폐쇄형 의사소통(problem-communication)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불신하며 의사소통도 선택적으로 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 및 경계심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폐쇄형 의사소통 문항은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검사의 구성변수들의 총 분산은 69.3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0.7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II-5>와 같다.

<표Ⅲ-5> 가정환경체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하위 내용	문항내용	요인 적재치	고유치 (설명된 분산 %)	Cronbach's α
양육 태도	애정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한다	.797	3.231 (32.306)	.814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부모님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내게 맡겨 주신다	.731		
		부모님은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도 꾸짖기보다 애썼다고 격려해 주신다	.674		
		내가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아는 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763		
		부모님은 내게 벌을 줄 때 내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737		
	감정 대응	부모님은 화가 날 때 가족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774	2.900 (29.003)	.859
		부모님이 내 말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810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에 관한 일을 부모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766		
		내가 어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엉뚱한 것을 한다고 나무랄 때가 많다	.775		
		부모님은 잘못하게 된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할 때가 많다	.786		
전체 설명력은 61.309%					
의사소통	개방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755	3.397 (46.463)	.882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822		
		나는 부모님에게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795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논드릴 수 있다	.858		
		나의 속마음을 부모님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861		
	폐쇄	부모님은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신다	.786	2.148 (26.845)	.782
		부모님은 나에게 성가신 잔소리를 하시는 편이다	.852		
		부모님은 나에게 화낼 때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 하신다	.843		
전체 설명력은 69.31%					

② 학교환경체계변인

i) 대학생활참여도

대학생활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현주 외(2013)가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와 권혜진(2007)의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 지각과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연구를 참고하였고, 연구목적에 맞게 지도교수의 조언을 통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각각 설문지 내용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업참여’, ‘수업 외 참여’로 명명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구성변수들의 총 분산은 7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0.8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II-6>와 같다.

ii) 창의적 교수법

창의적 교수법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이은주(2014)가 창의성과 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습 환경 조성 방안을 연구한 논문에서 참고를 하였다.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수업을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가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문항으로 지도교수의 조언을 통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창의적 교수법으로 명명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총 분산은 59.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0.8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II-6>과 같다.

<표III-6> 학교환경체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하위 내용	문항내용	요인 적재치	Eigen (설명력)	Cronbach's α
창의적 교수법		인성담당교수님은 활동 시 학생들이 주관하고, 필요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740	3.547 (59.113)	.860
		인성 담당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격려하고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797		
		인성 수업시간에 학생들끼리 협동과 화합의 과정이 제공된다	.812		
		인성 수업시간에 학생들끼리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797		
		인성수업은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755		
		인성수업은 다른 수업에 비해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다	.707		
전체 설명력은 59.113%					
대학 생활 참여	수업 참여	나는 수업 중 질문이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866	2.133 (42.663)	.803
		나는 수업 중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863		
		나는 수업의 팀 활동 및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42		
	학교 행사 참여	나는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909	1.720 (34.395)	.821
		나는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885		
전체 설명력은 77.058%					

③ 사회환경체계

i)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의철 & 박영신(1999)이 개발 및 검증한 사회적 지지 문항 중 교수, 대학친구의 정서적지지 문항을 지도교수의 조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SNS 상의 사회적지지, 그 외 확대된 사회활동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지지에 관한 문항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로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6문항을 추출하였으며,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은 친구의 정서적 지지,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 교수의 정서적 지지로 명명하였으며, 이 중 교수의 정서적 지지는 학교환경체계요인으로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구성변수들의 총 분산은 81.1%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친구의 정서적 지지는 Cronbach's α 값이 .80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지지의 Cronbach's α 는 .56으로 수치가 낮으나,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이 2개인 경우 문항 간 상관관계가 커도 Cronbach's α 값이 0.6보다 낮을 수 있고(박영옥, 2016), 안면타당도(전공 교수 2인, 박사 3인) 검토결과 내용 상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서 측정도구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III-7> 같다.

<표Ⅲ-7> 사회환경체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내용	요인 적재치	Eigen (설명력)	Cronbach 's α
친구의 정서적지지	대학친구들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	.892	1.757 (29.282)	.831
	대학친구들은 나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891		
사회관계망 지지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글을 올리면 우호적인 답글을 받는다.	.903	1.330 (22.164)	.564
	학교 외 활동(봉사, 종교, 인턴, 아르바이트 등)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678		
교수의 정서적지지	나의 교수님은 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신다	.900	1.777 (29.623)	.829
	나의 교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	.852		

전체 설명력은 81.069%

④ 인성중요도

대학생 인성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에 제시된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 가치·덕목”인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8가지를 하위요인으로 두고 인성중요도 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3개 요인으로 최종 12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개인덕목, 두 번째 요인은 가정덕목, 세 번째는 대인관계덕목으로 명명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구성변수의 총 분산은 68.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들의 Cronbach

h's α값은 모두 0.6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Ⅲ-8>과 같다.

<표Ⅲ-8> 인성중요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내용	요인 적재치	Eigen (설명력)	Cronbac h's α
개인덕목	진실하고 솔직한 것	.876	1.571 (13.093)	.656
	내가 불리해질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771		
가정덕목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798	2.760 (22.997)	.817
	어른 및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 하는 것	.688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736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795		
대인관계 덕목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것	.741	3.843 (32.026)	.897
	친구를 배려해 주는 것	.706		
	친구의 기분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려 주는 것	.766		
	친구의 고민을 잘 해결해 주는 것	.820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 하는 것	.808		
	단체 활동에서 힘든 역할이 주어져도 잘 협조하는 것	.739		

전체 설명력은 68.116%

⑤ 인성실천도

대학생 인성실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에 제시된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 가치·덕목”인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8가지를 하위요인으로 두고 인성실천도 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3개 요인으로 최종 12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개인덕목, 두 번째 요인은 가정덕목, 세 번째는 대인관계덕목으로 명명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실천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구성변수의 총 분산은 65.2%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0.6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 <표Ⅲ-9>와 같다.

<표Ⅲ-9> 인성실천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내용	요인 적재치	Eigen (설명력)	Cronbach's α
개인덕목	나는 진실하고 솔직하다.	.834	1.705 (14.208)	.629
	나는 내가 불리해질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721		
가정덕목	나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712	2.295 (19.124)	.745
	나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잘한다.	.630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한다.	.544		
	나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795		
대인관계 덕목	나는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준다.	.702	3.818 (31.819)	.893
	나는 친구를 잘 배려한다.	.739		
	나는 친구의 기분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려 준다.	.760		
	나는 친구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준다.	.785		
	나는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 한다.	.746		
	나는 단체 활동에서 힘든 역할이 주어져도 잘 협조한다.	.717		

전체 설명력은 65.150%

(3) 기술통계

①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와 정규성 검증

구조방정식모형은 다변량 정규성 가정에 이루어지는 분석으로 자료 분석 전에 측정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왜도가 절대값 2미만, 첨도는 7미만이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SPSS프로그램 결과값에서 첨도는 3을 뺀 값을 출력하므로 왜도가 절대값 2미만, 첨도는 절대값 4미만일 경우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왜도는 $-1.45 \sim .64$ 사이에 있고, 첨도는 $-.87 \sim 2.24$ 사이에 있어 정규분포 가정이 만족된다.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와 정규성 검증 결과는 다음 <표 IV-10>과 같다.

②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외생변수의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크기가 .7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외생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크기가 모두 .7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의 문제는 없었다. 특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측정변수의 상관관계결과는 다음 <표Ⅲ-10>과 <표Ⅲ-11>과 같다.

<표Ⅲ-10>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양육태도	2.14	5.00	3.65	.63	.24	-.87
의사소통	1.56	5.00	3.28	.57	.64	.59
부모지지	1.20	5.00	3.88	.78	-.20	-.47
대학참여	1.00	5.00	3.19	.66	-.15	.74
교수법	1.00	5.00	3.40	.64	-.08	1.00
교수지지	1.00	5.00	3.56	.87	-.21	.09
사회관계망지지	1.00	5.00	3.69	.77	-.25	.27
친구지지	1.00	5.00	3.81	.80	-.09	-.57
개인중요	1.00	5.00	4.09	.74	-.71	.27
가정중요	2.00	5.00	4.56	.53	-1.45	2.24
대인중요	1.00	5.00	4.06	.70	-.35	-.08
개인실천	1.00	5.00	3.67	.74	-.20	.33
가정실천	2.00	5.00	3.94	.62	.03	-.78
대인실천	1.00	5.00	3.84	.69	-.06	-.17

<표Ⅲ-1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Y1	Y2	Y3	Y4	Y5	Y6
양육태도	1													
의사소통	.746*** (p=.000)	1												
부모지지	.675*** (p=.000)	.684*** (p=.000)	1											
대학참여	.040*** (p=.000)	.119*** (p=.000)	.174*** (p=.000)	1										
교수법	.096*** (p=.000)	.109*** (p=.000)	.254*** (p=.000)	.313*** (p=.000)	1									
교수지지	.230*** (p=.000)	.253*** (p=.000)	.373*** (p=.000)	.326*** (p=.000)	.336*** (p=.000)	1								
사회관계망지지	.235*** (p=.000)	.191*** (p=.000)	.295*** (p=.000)	.347*** (p=.000)	.200*** (p=.000)	.408*** (p=.000)	1							
친구지지	.354*** (p=.000)	.253*** (p=.000)	.400*** (p=.000)	.227*** (p=.000)	.265*** (p=.000)	.420*** (p=.000)	.498*** (p=.000)	1						
개인중요	.103*** (p=.000)	.153*** (p=.000)	.209*** (p=.000)	.190*** (p=.000)	.150*** (p=.000)	.215*** (p=.000)	.268*** (p=.000)	.226*** (p=.000)	1					
가정중요	.401*** (p=.000)	.303*** (p=.000)	.428*** (p=.000)	.129*** (p=.000)	.185*** (p=.000)	.223*** (p=.000)	.244*** (p=.000)	.331*** (p=.000)	.361*** (p=.000)	1				
대인중요	.401*** (p=.000)	.324*** (p=.000)	.463*** (p=.000)	.240*** (p=.000)	.245*** (p=.000)	.354*** (p=.000)	.368*** (p=.000)	.530*** (p=.000)	.425*** (p=.000)	.582*** (p=.000)	1			
개인실천	.231*** (p=.000)	.244*** (p=.000)	.299*** (p=.000)	.212*** (p=.000)	.175*** (p=.000)	.238*** (p=.000)	.288*** (p=.000)	.339*** (p=.000)	.473*** (p=.000)	.243*** (p=.000)	.371*** (p=.000)	1		
가정실천	.541*** (p=.000)	.491*** (p=.000)	.617*** (p=.000)	.224*** (p=.000)	.286*** (p=.000)	.366*** (p=.000)	.345*** (p=.000)	.482*** (p=.000)	.218*** (p=.000)	.502*** (p=.000)	.585*** (p=.000)	.407*** (p=.000)	1	
대인실천	.375*** (p=.000)	.322*** (p=.000)	.439*** (p=.000)	.363*** (p=.000)	.292*** (p=.000)	.368*** (p=.000)	.436*** (p=.000)	.540*** (p=.000)	.248*** (p=.000)	.387*** (p=.000)	.683*** (p=.000)	.468*** (p=.000)	.663*** (p=.000)	1

(4) 구성개념의 타당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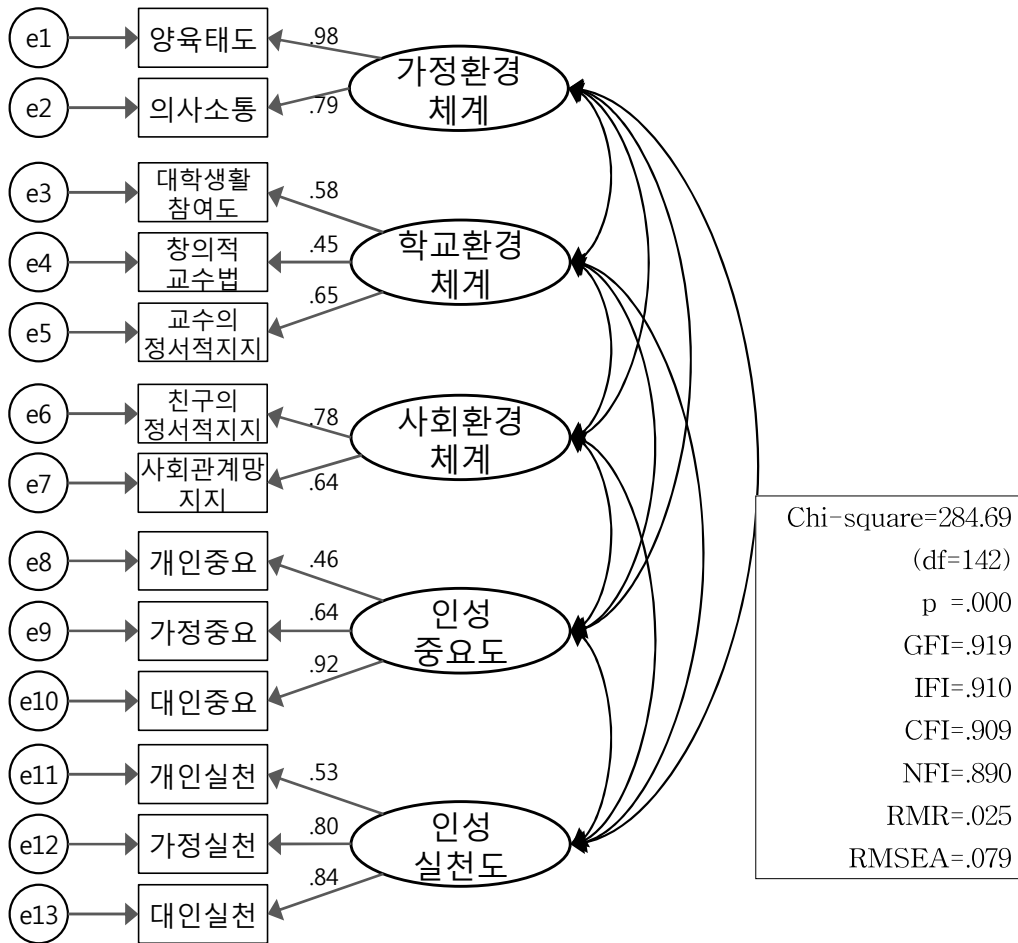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 앞서, 구성개념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1차 분석을 거친 측정항목들에 대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Fornell, Larcker, 198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와 이를 구성한 관측변수의 구성이 적합하고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송지준, 2008).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그림Ⅲ-2>와 <표Ⅲ-12>와 같다. 평가를 위해 표준부하량(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개념신뢰도(C.R : Construc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값(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등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의 적합도 기준부합지수는 GFI, NFI, IFI, CFI 값은 0.9 이상, RMR, RMSEA 값은 0.08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카이자승의 경우에는 카이자승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1 이상 3 이하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분석결과, GFI=.919, NFI=.890, IFI=.910, CFI=.909, GFI=.919, RMR=.025, RMSEA=.079으로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우종필, 2012). 카이자승을 자유도로 나눈 값도 2.00로 1에서 3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의 기준부합지수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적재치(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표준부하량

이 요인적재치를 의미함)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면($C.R > 1.965$)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Anderson & Gerbing, 1988),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인과적 유의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파악되었으며($p < 0.05$), 표준화람다값 역시 대부분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든 관측변수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개별 측정변수들의 평균분산 추출값은 학교환경 항목이 약간의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모델의 적합도 부합지수, 표준화람다값, CR 값,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공근 등 다른 모든 측정항목에서 수렴타당성,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림Ⅲ-2> 구성개념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Ⅲ-12> 대학생의 각 환경체계와 인성중요도, 인성실천도의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잠재 요인	측정변수	표준람다	t값 (CR)	C. R (개념신뢰도)	AVE
가정환경 체계	부모의 양육태도	0.978	-	.944	.895
	부모-자녀 의사소통	0.788	13.765***		
학교환경 체계	대학생활참여도	0.583	-	.705	.448
	창의적 교수법	0.448	7.397***		
	교수의 정서적 지지	0.647	9.355***		
사회환경 체계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	0.640	-	.768	.626
	친구의 정서적 지지	0.778	12.161***		
인성 중요도	개인덕목 인성중요	0.461	-	.860	.688
	가정덕목 인성중요	0.638	9.090***		
	대인관계덕목 인성중요	0.922	9.947***		
인성 실천도	개인덕목 인성실천	0.528	-	.873	.704
	가정덕목 인성실천	0.796	11.454***		
	대인관계덕목 인성실천	0.839	11.707***		

개념신뢰도(C.R)=(\sum 표준추정치)²/[(\sum 표준추정치)²+(측정변수의오차항)] \geq 0.7
 평균분산추출값(AVE)=(\sum 표준추정치)²/[(\sum 표준추정치)²+(측정변수의오차항)] \geq 0.5

① 가정환경체계 타당성 확인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 <표 III-13>과 같으며, GFI=.908, NFI=.906, IFI=.932, CFI=.931, RMR=.051, RMSEA=.070으로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우종필, 2012). 카이자승을 자유도로 나눈 값도 2.62로 1에서 3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의 기준부합지수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적재치(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표준부하량이 요인적재치를 의미함)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면($C.R > 1.965$)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Anderson & Gerbing, 1988),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인과적 유의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파악되었으며($p < 0.05$), 표준화람다값 역시 대부분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든 관측변수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가정환경체계를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Ⅲ-13> 가정환경체계 하위요인들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잠재 요인	측정변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 R	AVE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양 육 - 애 정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한다	1	0.834	-	-	.835	.507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부모님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내게 맡겨 주신다	0.854	0.678	0.055	15.601		
	부모님은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도 꾸짖기보다 애썼다고 격려해 주신다	0.801	0.636	0.055	14.451		
	내가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아는 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0.746	0.676	0.048	15.539		
	부모님은 내게 벌을 줄 때 내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0.671	0.601	0.051	13.080		
양 육 - 감 정 대 응	부모님은 화가 날 때 가족들에게 화풀이 하는 경우가 많다.	1	0.711	-	-	.845	.522
	부모님이 내 말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1.065	0.800	0.065	16.384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부모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0.997	0.716	0.068	14.749		
	내가 어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엉뚱한 것을 한다고 나무랄 때가 많다	1.014	0.703	0.07	14.483		
	부모님은 잘못하게 된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할 때가 많다.	1.091	0.781	0.068	16.015		
소 통 - 개 방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1	0.761	-	-	.887	.612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1.041	0.775	0.06	17.353		
	나는 부모님에게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1.044	0.702	0.067	15.524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논드릴 수 있다	1.081	0.818	0.059	18.432		
	나의 속마음을 부모님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1.092	0.835	0.058	18.842		
소 통	부모님은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신다	1	0.700	-	-	.771	.529

- 폐 쇄	부모님은 나에게 성가신 잔소리를 하시는 편이다	0.949	0.706	0.068	13.886		
	부모님은 나에게 화낼 때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1.139	0.805	0.074	15.490		

모형적합도 : chi-squar=338.542 (p=.000), df=129, $\chi^2/df =2.62$, GFI=.908
NFI=.906, IFI= .932, CFI=.931, RMR=.051, RMSEA=.070

② 학교환경체계 타당성 확인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 <표 III-14>과 같으며, GFI=.952, AGFI=.926, NFI=.943, CFI=.963, RMR=.027, RMSEA=.058으로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우종필, 2013). 카이차승을 자유도로 나눈 값도 2.64로 1에서 3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의 기준부합지수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적재치(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표준부하량이 요인적재치를 의미함)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면(C.R>1.965)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Anderson & Gerbing, 1988),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인과적 유의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파악되었으며(p<0.05), 표준화람다값 역시 모두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든 관측변수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에 학교환경체계를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Ⅲ-14> 학교환경체계 하위요인들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잠재 요인	측정변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 R	AVE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창의적 교수 법	인성 담당교수님은 활동 시 학생들이 주관하고, 필요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1	0.679	-	-	.900	.603
	인성 담당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격려하고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1.123	0.753	0.078	14.376		
	인성 수업시간에 학생들끼리 협동과 화합의 과정이 제공된다	1.303	0.784	0.088	14.854		
	인성 수업시간에 학생들끼리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299	0.755	0.090	14.403		
	인성수업은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137	0.68	0.086	13.179		
	인성수업은 다른 수업에 비해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다	1.036	0.625	0.085	12.233		
수업 참여	나는 수업 중 질문이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0.851	-	-	.857	.672
	나는 수업 중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72	0.857	0.061	17.562		
	나는 수업의 팀 활동 및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0.647	0.586	0.051	12.813		
학교 행사 참여	나는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0.861	-	-	.820	.695
	나는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0.972	0.808	0.077	12.611		
교수 정서 적지 지	나의 교수님은 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신다	1	0.846	-	-	.845	.732
	나의 교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	0.937	0.838	0.082	11.376		

모형 적합도 : chi-squar=155.973 (p=.000), df=59, χ^2/df =2.64, GFI=.952
AGFI=.926, NFI=.943, CFI=.963, RMR=.027, RMSEA=.058

③ 사회환경체계 타당성 확인

대학생의 사회환경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 <표 III-15>와 같으며, GFI=.999, AGFI=.987, NFI=.998, RMR=.006, RMSEA=.022으로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우종필, 2013). 카이자승을 자유도로 나눈 값도 1.245로 1에서 3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의 기준부합지수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적재치(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표준부하량이 요인적재치를 의미함)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면($C.R > 1.965$)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Anderson & Gerbing, 1988),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인과적 유의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파악되었으며($p < 0.05$), 표준화람다값 역시 대부분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든 관측변수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개별 측정변수들의 개념신뢰도, 평균분산 추출값은 몇몇 항목이 약간의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모델의 적합도 부합지수, 표준화람다값, CR 값,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공근 등 다른 모든 측정항목에서 수렴타당성,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사회환경체계를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Ⅲ-15> 사회환경체계 하위요인들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잠재 요인	측정변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 R	AVE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친구의 정서적 지지	대학 친구들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	1	0.865	-	-	.868	.766
	대학 친구들은 나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1.004	0.824	0.074	13.651		
사회관 계망 지지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통한 온라인 상에서의 글을 올리면 우호적인 답글을 받는다	1	0.704	-	-	.608	.440
	학교 외 활동(봉사, 종교, 인턴, 아르바이트 등)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0.956	0.567	0.116	8.243		

모형적합도 : chi-squar=1.245 (p=.000), df=1, χ^2/df =1.25, GFI=.999
AGFI=.987, NFI= .998, RMR=.006, RMSEA=.022

④ 인성중요성 타당성 확인

인성 중요도의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 <표 Ⅲ-16>과 같으며, GFI=.898, NFI=.895, IFI=.932, CFI=.910, RMR=.030, RMSEA=.089은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우종필, 2013). chi-square를 자유도로 나눈 값도 2.79로 1에서 3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의 기준부합지수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적재치(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표준부하량이 요인적재치를 의미함)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면(C.R>1.965)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Anderson & Gerbing, 1988),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인과적 유의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파악되었으며(p<0.05), 표준화람다값 대부분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든 관측변수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인성중요도는 구조방정식 모델 분

석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Ⅲ-16> 인성중요도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잠재요인	측정변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 R	AVE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개인 덕목	진실하고 솔직한 것	1	0.854	-	-	.743	.600
	내가 불리해질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0.724	0.573	0.094	7.723		
가정 덕목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1	0.696	-	-	.912	.721
	어른 및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것	1.067	0.705	0.079	13.456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1.114	0.734	0.08	13.901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1.117	0.774	0.077	14.483		
대인 관계 덕목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것	1	0.763	-	-	.923	.668
	친구를 배려해주는 것	1.042	0.817	0.056	18.609		
	친구의 기분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려주는 것	1.054	0.769	0.061	17.362		
	친구의 고민을 잘 해결해 주는 것	1.242	0.745	0.074	16.742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하는 것	1.096	0.81	0.059	18.421		
	단체 활동에서 힘든 역할이 주어져도 잘 협조하는 것	0.988	0.739	0.06	16.587		

모형 적합도 : chi-squar=312.527 (p=.000), df=112, χ^2/df =6.13, GFI=.898
IFI=.932, NFI= .895, CFI=.910, RMR=.030, RMSEA=.089

⑤ 인성실천도 타당성 확인

인성실천도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 <표Ⅲ-17>과 같으며, GFI=.934, NFI=.924, IFI=.942, CFI=.941, RMR=.031, RMSEA=.078으로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우종필, 2013). 카이자승을 자유도로 나눈 값도 3.96로 1에서 3사이의 값에서 약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적합도의 기준부합지수를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적재치(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표준부하량이 요인적재치를 의미함)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면($C.R > 1.965$)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Anderson & Gerbing, 1988),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인과적 유의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파악되었으며($p < 0.05$), 표준화람다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든 관측변수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개별 측정변수들의 개념신뢰도, 평균분산 추출값은 한 항목이 약간의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모델의 접합도 부합지수, 표준화람다값, CR 값,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공근 등 다른 모든 측정항목에서 수렴타당성,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인성실천도를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Ⅲ-17> 인성실천도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잠재 요인	측정변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 R	AVE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개인 덕목	나는 진실하고 솔직하다	1	0.754	-	-	.696	.537
	나는 내가 불리해질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0.914	0.612	0.108	8.446		
가정 덕목	나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1	0.779	-	-	.816	.532
	나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잘한다	0.957	0.717	0.065	14.68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한다	0.739	0.502	0.072	10.257		
	나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0.818	0.632	0.063	12.982		
대인 관계 덕목	나는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준다	1	0.781	-	-	.920	.658
	나는 친구를 잘 배려해준다	0.891	0.77	0.05	17.826		
	나는 친구의 기분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려준다	0.907	0.742	0.053	17.046		
	나는 친구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준다	0.939	0.745	0.055	17.146		
	나는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 한다	0.927	0.767	0.052	17.752		
	나는 단체 활동에서 힘든 역할이 주어져도 잘 협조한다	1.078	0.774	0.06	17.943		

모형적합도 : chi-squar=202.019 (p=.000), df=51, χ^2/df =3.96, GFI=.934
AGFI=.898, IFI=.942, NFI=.924, CFI=.941, RMR=.031, RMSEA=.078

5)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분석의 목적에 맞추어 SPSS Window(version 18.0)과 구조방정식 모델(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프로그램인 AMOS 18.0을 이용하였으며, 실시한 통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Decriptive)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를 통해 평가하였다.

셋째, 변수들 간의 관계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였고, 잠재 변인의 타당도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영향요인 및 측정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였고, 모형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카이제곱 χ^2 , AGFI(Adjusted Good of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사용,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대학 인성교육의 현황분석

1) 목적적 측면

(1) 건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비교 분석

연구자가 수집한 각 대학의 2016년도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건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를 수집하여 다음 <표 IV-1>과 같이 정리하였고, 각 대학별로 교육철학을 건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등을 통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목적/목표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였다.

<표 IV-1> 13개 대학의 건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대학교	건학 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건양대학	건학이념 : 참된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목적 : 탁월한 실용 전문인, 화합하는 민주시민 양성 교육목표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함양, 건강한 육체와 정신 함양,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봉사하는 리더십 함양, 글로벌능력 함양, 의사소통능력 함양
경희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정신의 구현과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역할을 능동적으로 찾는 최고교육기관의 하나로서 전문학술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전인교육을 통한 민주적 품격을 도야함으로써 문화복지 건설에 역군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양성
대전대학	해화인은 세계 속의 명문사학을 이루기 위해 화합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열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민족 사랑 생명존중 실질추구의 혜화이념을 구현
동덕여대	창학 정신인 여성교육을 통한 교육입국, 교육이념 덕의 함양과 실천에 따라 새로운 학술이론과 응용법, 특히 고도산업 기술사회와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교수 연구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의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성과 덕성을 갖춘 여성 전문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함.
서울대	고기에 라틴어로 표기되어 있는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라는 말로 집약. 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며, 창의적 미래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표로 해서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지향.
서울여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독교 정신에 기초를 둔 지식교육, 도의교육 및 기술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함으로써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지, 덕, 술을 갖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 여기서 기독교정신의 함양이라 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심성과 성숙된 인격을 도야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임
성균관대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자기완성과 인류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유교정신(儒敎精神)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있음
성신여대	誠信(성신) 정성되고 믿음직하게 知新(지신) 새로운 지식을 넓고 깊게 自動(자동) 스스로 움직여 자기 힘으로 민족정신을 기반으로 정성되고 믿음직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건학이념
연세대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 연세인은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을 이끔
인하대	개인의 인격도야를 통하여 창의성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21C 세계인 육성을 지향, 진리탐구를 통하여 새로운 문물을 익히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사회봉사를 통하여 민족과 인

	류의 번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민족 구성원의 공영과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인재를 육성
중부대학	<p>건학정신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학술적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성실하고 창조적인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함</p> <p>교육목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유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재양성 자유민주시민으로서의 지성과 덕성 함양,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격인 양성 2. 진리를 탐구하는 인재양성 새로운 학문과 문화에 대한 이해력 증진 잠재능력의 개발로 창조적 탐구능력 배양 정보처리 능력과 과학적 지식의 습득 및 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
진주교대	<p>교육목적은 국가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환경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지성, 타인과의 공존을 도모하는 덕성,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함.</p> <p>교육정책 기본방향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교육,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및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감성을 지닌 교육인 양성 - 타인과 함께 하는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봉사인 육성 - 글로벌 시대 문화적 역량을 갖춘 창의인 육성 - 교육에 필요한 창의적 소양을 지닌 전문인 육성
청운대	<p>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인의, 예지, 신애의 교훈정신에 입각하여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p>

이 자료를 기반으로 각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철학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1¹⁾(Trial version)을 활용해

1) Nvivo는 Quality Systems Registrars(QSR)사가 개발한 컴퓨터 활용 질적 텍스트 분석 software.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였고, 손동현 외(2012)의 10가지 유형별 분석을 참고 하여 핵심 단어 중심으로 분류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IV-2>와 같이 나타났다.

교육 목적유형 별로 보면 도덕성, 인성 관련 항목이 33회로 가장 많았으며, 의지적 실천관련 항목이 27회, 지적능력 항목이 22회, 시대적-문화사회적상황관련 항목이 19회, 실용적 지식-기술 관련 항목이 14회, 사회적 실천 관련 항목이 12회의 순이었다.

인성교육은 초등과 중등의 학교교육에 관련되어 있고, 대학에서는 전문교육과 직업준비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지만, 각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철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 및 인성 함양과 증진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 NVivo를 활용한 13개 대학의 건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분석 결과

구분	교육 목적유형	단어	빈도
1	도덕성, 인성 관련	인격,덕성,덕,인성,인의,정성,성숙,성실,성신, 품격,자질,심성,예지,올바른,완성,유교정신, 참된,전인교육,정신, 존엄, 존중, 도의	33
2	의지적 실천관련	함양, 양성, 육성, 인재양성, 도야, 실시, 실용, 실질추구, 실천	27
3	지적능력	진리, 진리탐구, 지식, 창의, 창조, 연구, 지성	22
4	시대적-문화사회적 상황 관련	인류, 인류사회, 인류평화, 세계화, 세계인, 세계, 민족, 민족사랑, 민족정신, 화합, 협력	19
5	실용적 지식-기술 관련	전문인,전문지식,전문화,스스로,수기치인, 자기, 자기주도, 자신, 인재	14
6	사회적 실천 관련	봉사, 사회, 사회봉사, 공헌, 이바지, 헌신	12

(2) 인성과목 수업목표

각 대학의 홈페이지 검색 및 학교편람을 통해 각 대학의 인성관련 과목의 수업 목표를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건양대학교는 “가장 좋은 인성교육 선생은 부모라고 생각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 경희대학교는 “인간이 강한 집착을 보여온 가치들은 무엇이며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추적”, 대전대학교는 “예절과 인성은 현대사회에 자기관리/대인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사회생활예절 및 직장예절 실천을 통해 취업률 제고”, 동덕여자대학교는 “자발적 자기계발을 통해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내”를 수업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의료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명존중, 공감, 측은지심 등의 소양을 함양”, 서울여자대학교는 바름인성교육을 통해 “나, 사회, 세계를 깨우는 교육”,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인의예지와 수기치인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 성신여자대학교는 “정성(誠), 믿음(信)으로,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는 실천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삶의 태도 교육”을 수업목표로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균형있는 ‘성 인식’ 확보”, 인하대학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공학설계활동을 수행”, 중부대학교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할과 태도,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예절과 매너의 기술 습득”, 진주교육대학교는 “미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 대인관계 등 인성적 측면 교육”, 그리고 청운대학교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그리고 예절의 습득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거울삼아 현대 우리 삶 속에 창출”을 수업 목표로 인성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각 대학들의 철학에 맞추어 인성 증진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실천 중심으로 수업 목표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 13개 대학의 인성과목 수업 목표

대학교	수업 목표
건양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는 것은 기본이고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 가장 좋은 인성교육 선생은 부모라고 생각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
경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 오랜 문명전개의 과정을 통해 어떤 가치들을 탐색하고 추구해왔으며 어떤 가치세계를 구성해왔는가를 보는 것은 ‘인간 이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속함 • 동서양 문명을 포괄하는 지구사회적 문맥에서,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들은 무엇이며 그 가치들은 어떻게 추구되고 구성되어 왔는가, 여러 문명의 흥망성쇠를 거치면서도 인간이 강한 집착을 보여 온 가치들은 무엇이며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무엇인가—이 질문을 추적하는 것이 이 과목의 과제
대전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과 인성은 현대사회에 자기관리/대인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깨닫도록 함 • 실습 및 적극적 수업참여 방식을 통해 예절과 인성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캠퍼스 안에서 존중과 배려, 공중 예절이 실천되는 대학생 문화를 형성 • 사회생활예절 및 직장예절 실천을 통해 취업률 제고와 대전대인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동덕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덕인성교육의 목표는 수강생들이 자발적 자기계발을 통해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임 • 수강생들의 자기 이해가 자아 정체성과 비전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제공. 이와 더불어 도덕과 행복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목표 정립을 시도하고, 소통과 공감 능력의 함양을 통해 배려에 기초한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을 도모. 나아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인간으로의 고양을

	<p>위해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적 의식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고취</p>
서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예과 학생들의 예비의료인으로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성찰을 통해 자아정체감, 자기조절능력을 습득 -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룬 미래 의료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명존중, 공감, 측은지심 등의 소양을 함양 -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 해결에 필요한 신뢰, 협동, 소통 등의 핵심 가치를 함양 - 나,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인으로서 책무성을 갖고, 전문직 사회지도자로서의 가치관을 확립
서울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롬인성교육Ⅰ : ‘나를 깨우는 교육’으로 다각적인 자아이해에 기반하여 미래비전을 수립하며,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바롬인성교육Ⅱ: ‘사회를 깨우는 교육’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서부터 조직, 사회와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통의 영역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기술 함양을 주요 내용 • 바롬인성교육Ⅲ : ‘세계를 깨우는 교육’을 표방하며, 세계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며, 실천과 참여를 통해 창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함양
성균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의예지와 수기치인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21세기 글로벌 선도하는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실천이 합일된 인성교육의 신 Paradigm 구축하고 확산 - 창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동양적 가치와 서양적 가치를 융합하여 개인차원(인의예지), 대학차원(수기안인), 사회·국가차원(홍익인간)의 목표를 설정
성신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신인]은 정성(誠), 믿음(信)으로, 공동체 사회와 미래를 품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 다음의 세부목표를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誠) : “자신을 품다” 성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새롭게 나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표와 계획 수립 - 신(信) : “타인을 품다” 성신인로서 갖추어야 할 대인관계 기본소양과 태도를 함양 - 인(人) : “공동체 사회와 미래를 품다”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는 실천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삶의 태도를 함양

연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1학년 때의 균형있는 ‘성 인식’ 확보 • 융·복합적 사고로 인성 함양 • 기존 교과목과 함께 시너지 효과 창출 •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성 인식’
인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설계에 기반한 팀프로젝트 학습활동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공학설계활동을 수행하고 실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적용해 보는 활동 • 교육봉사활동 : 중고등학생 및 교사들의 요구조사에 기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 교육봉사활동 실시 • 사회문제인식제고 캠페인 :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하고 대중들에게 관심을 제고시키고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설계 및 실천
중부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기본원리를 적용 • 21세기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할과 태도 함양 •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예절과 매너의 기술 습득
진주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예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 생활에 필요한 예절교육 기회 제공 - 미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 대인관계 등 인성적 측면 교육 강화 - 자기성찰과 내재화 및 습관화를 통한 참된 교사의 준비
청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교심함양과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교양인 형성 • 지역문화체험을 통한 상황판단 능력과 과제실행능력 향상 •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그리고 예절의 습득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거울삼아 현대 우리 삶 속에 창출하고자 하는 온고이지신(溫故以知新) 과정 •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생활문화와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전반적인 예절에 관한 내용을 이론 및 체험위주의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개인예절, 인사예절, 언어예절, 행동예절, 생활예절, 캠퍼스예절, 다도교육 등)

2) 구조적 측면

각 대학의 홈페이지 검색, 학교편람 및 논문저널 등의 자료 조사를 통한 인성교육 관련 과목 개설 여부와 과목 형태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결

과 다음 <표IV-4> 와 같다.

대부분의 대학이 1학년을 대상으로 인성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고, 성균관대학교, 대전대학교, 건양대학교의 경우는 전 학년이 수강신청 가능한 점과, 인하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의 경우 3학년만을 대상으로 인성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과목 형태를 살펴보면 연세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는 조사된 인성관련 과목의 경우 비교과목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교양선택(교선)과 교양필수(교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전공선택(전선)으로, 인하대학교는 전공필수(전필)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IV-4> 13개 대학의 인성과목 개설 및 형태 분석

구분	(1) 과목 개설[학년]				(2) 과목 형태				
					비교과목	교과목			
	1	2	3	4			교선	교필	전선
건양대	●	●	●	●			●		
경희대	●						●		
대전대	●	●	●	●			●		
동덕여대	●	●					●		
서울대	●	●						●	
서울여대	●	●	●				●		
성균관대	●	●	●	●		●			
성신여대	●						●		
연세대	●				●				
인하대			●			●	●		●
중부대학	●	●					●		
진주교대			●		●				
청운대	●					●			

3) 내용적 측면

(1) 교과목명/내용

각 대학의 홈페이지 검색 및 학교편람을 통해 수집된 각 대학의 인성 관련 대표 과목과 그 과목의 수업 내용은 다음 <표 IV-5>와 같다.

건양대학교는 “밥상머리교육”이라는 과목명으로 “체험형 학습 교육으로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자기주도성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경희대학교는 “내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요 내용으로, 대전대학교는 “글로벌시대의 예절과 인성”이라는 과목명으로 “예절에 대한 기본 이해와 실습을 통한 인성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동덕여자대학교는 “동덕 인성교육”이라는 과목명으로 “자아의 정체성 확립, 타인 배려 및 소통 소양을 기르고 이에 합리적/비판적 사고를 더해 실천하고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나-우리-사회에 대한 이해”라는 과목명으로 “나에 대한 이해부분은 자기성찰, 정서조절, 대인관계 기술로 우리에게 대한 이해 부분은 생명존중·생로병사, 공감·측은지심·배려심, 팀워크·책임감, 소속감이며, 사회에 대한 이해부분은 의사소통·다양성 존중·세계화 및 글로벌화 속에서의 인식과 실천으로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서울여자대학교는 “바름인성교육”이라는 과목명으로 “학년별 공동체 생활과 공통과제 수행”을 주요내용으로, 성균관대학교는 “실천리더십”이라는 과목명으로 “4명의 교수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대 주제”를 주요 내용으로, 성신여자대학교는 “성신인”이라는 과목명으로 “학교에 대한 정체성, 삶의 비전과 목표 수립, 공동체 사회와 미래에 기여”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균형 있는 ‘성’인식 함양을 위한

RC포럼” 라는 과목명으로 “심리학/생물학/인문학/문학/법학 관점의 성”을 주요내용으로, 인하대학교는 “나눔의 공학”이라는 과목명으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현실을 직접 관찰, 문제 도출 및 해결/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중부대학교는 “대학생활지도 및 인성”이라는 과목명으로 “팀티칭방식의 예절과 창의력 향상”을 주요내용으로, 진주교육대학교는 “품격을 높이는 예비교사 인성 프로그램”이라는 과목명으로 “예절, 봉사, 협동, 도전”을 주요내용으로 청운대학교는 “신구문화조화, 전통문화 이해, 여가와 인성함양, 전통예절체험”을 주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5> 대학의 인성과목명과 내용 분석

대학교	교과목명/내용
진양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는 것은 기본이고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 가장 좋은 인성교육 선생은 부모라고 생각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
경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명 : 인간의 가치 탐색 • 과목내용 : 흥미롭게도 인간은 가치추구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자신을 새로 ‘발견’하거나 ‘발명’해온 동물입니다. ‘진리’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인간은 철학자를 발명했고 ‘사실’(fact)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다 과학자를 발명했습니다. ‘의미’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인간은 시인을 발명합니다. 자유, 정의, 평등 같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인간은 ‘목숨도 던지는 인간’을 발명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펼쳐온 이 오랜 추구서사의 중요한 순간과 장면들을 만나는 동안 학생들은 ‘인간’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이 과목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영역들을 가로지르고 관통하는 학제적 방식으로 인간 이해에 접근하고, 궁극적으로 “내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생들 스스로 응답하도록 유도합니다.

대전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과 인성은 현대사회에 자기관리/대인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깨닫도록 함 • 실습 및 적극적 수업참여 방식을 통해 예절과 인성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캠퍼스 안에서 존중과 배려, 공중 예절이 실천되는 대학생 문화를 형성 • 사회생활예절 및 직장예절 실천을 통해 취업률 제고와 대전대인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동덕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덕인성교육의 목표는 수강생들이 자발적 자기계발을 통해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임 • 강생들의 자기 이해가 자아 정체성과 비전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제공. 이와 더불어 도덕과 행복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목표 정립을 시도하고, 소통과 공감 능력의 함양을 통해 배려에 기초한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을 도모. 나아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인간으로의 고양을 위해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적 의식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고취
서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예과 학생들의 예비의료인으로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성찰을 통해 자아정체감, 자기조절능력을 습득 -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룰 미래 의료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명존중, 공감, 측은지심 등의 소양을 함양 -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 해결에 필요한 신뢰, 협동, 소통 등의 핵심 가치를 함양 - 나,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인으로서 책무성을 갖고, 전문직 사회지도자로서의 가치관을 확립
서울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롬인성교육 I : ‘나를 깨우는 교육’으로 다각적인 자아이해에 기반하여 미래비전을 수립하며,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바롬인성교육 II: ‘사회를 깨우는 교육’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서부터 조직, 사회와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통의 영역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기술 함양을 주요 내용 • 바롬인성교육 III : ‘세계를 깨우는 교육’을 표방하며, 세계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며, 실천과 참여를 통해 창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함양
성균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의예지와 수기치인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21세기 글로벌 선도하는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실천이 합일된 인성교육의 신 Paradigm 구축하고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동양적 가치와 서양적 가치를 융합하여 개인차원(인의예지), 대학차원(수기안인), 사회·국가차원(홍익인간)의 목표를 설정
성신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신인]은 정성(誠), 믿음(信)으로, 공동체 사회와 미래를 품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 다음의 세부목표를 갖고 있음 - 성(誠) : “자신을 품다” 성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새롭게 나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표와 계획 수립 - 신(信) : “타인을 품다” 성신인로서 갖추어야 할 대인관계 기본소양과 태도를 함양 - 인(人) : “공동체 사회와 미래를 품다”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는 실천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삶의 태도를 함양
연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1학년 때의 균형있는 ‘성 인식’ 확보 • 융·복합적 사고로 인성 함양 • 기존 교과목과 함께 시너지 효과 창출 •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성 인식’
인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설계에 기반한 팀프로젝트 학습활동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공학설계활동을 수행하고 실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적용해 보는 활동 • 교육봉사활동 : 중고등학생 및 교사들의 요구조사에 기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 교육봉사활동 실시 • 사회문제인식제고 캠페인 :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하고 대중들에게 관심을 제고시키고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설계 및 실천
중부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기본원리를 적용 • 21세기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할과 태도 함양 •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예절과 매너의 기술 습득
진주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예비교사 - 교직 생활에 필요한 예절교육 기회 제공 - 미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 대인관계 등 인성적 측면 교육 강화 - 자기성찰과 내재화 및 습관화를 통한 참된 교사의 준비
청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교심함양과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교양인 형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체험을 통한 상황판단 능력과 과제실행능력 향상 •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그리고 예절의 습득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거울삼아 현대 우리 삶 속에 창출하고자 하는 온고이지신(溫故以知新) 과정 •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생활문화와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전반적인 예절에 관한 내용을 이론 및 체험위주의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개인예절, 인사예절, 언어예절, 행동예절, 생활예절, 캠퍼스예절, 다도교육 등) |
|---|

(2) 수업방식

각 대학의 홈페이지 검색 및 학교편람을 통해 수집된 각 대학의 인성 관련 대표 과목의 수업방식은 다음 <표 IV-6>과 같다.

건양대학교는 학교 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일반인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희 대학교는 인문학 능력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대학교는 팀별 토론과 발표 중심이며, 마지막에 팀별 인성과 관련된 UCC를 제작하여 Contest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세 차례의 특강이 병행되고 On/Off line으로 진술한 개방적 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주, 부 담당 교수 3명이 모든 수업에 참석하고 6주차 외부기관 봉사활동, 13주차 동문 참여 간담회가 특징이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양필수 과목으로 바롬인성교육을 진행하며, 1학년은 1학기에만 개설이 되며 3주간 바롬인성교육관에서 합숙 공동생활을 하면서 합창제를 준비하여 대회를 하고, 2학년은 바롬인성교육Ⅱ가 2학기에 개설되며 2주간 공동체 생활 진행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롬인성교육Ⅲ 교과목형태이며 마지막에 팀별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균관대학교는 기존의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형 인성교육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특히 수업 끝에 자기 PT를 통해 변화 전과 후의 자기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신여자대학교는 ‘표준교육안’, ‘강사매뉴얼’, ‘워크시트’ 및 ‘공통교육콘텐츠’ 등 표준자료를 기반으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팀별 프로젝트 형태로 4가지 Mission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Mission 4는 ‘공통체사회와 미래를 품다’로서 봉사과 사회기여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세대학교는 RC 환경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각도에서 성인식을 고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하대학교는 지역사회와 실질적 문제 해결에 Focus하고 있고, 특히 3학년에 본인의 전공을 활용하여 맞춤형 지역 봉사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부대학교는 성공학, 리더십, 예절, 창의로 인성 전입교수가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주교육대학교는 3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금/토요일에 진행이 되며 MBTI, 미술치료, 공감프로그램, 인성교육 특강, 예절탐구 등 전체수업을 체험식으로 진행하여 인성교육을 통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운대학교는 최초의 농어촌 인성학교인 거북이마을과 연계한 수업을 진행할 만큼 실습/체험형 수업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6> 13개 대학의 인성과목 수업방식 분석

대학교	수업방식
건양대학	• 학교 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일반인들을 강사로 초빙함
경희대	• 전입교수 중심 운영으로 인문학 능력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 추구
대전대학	• 6개 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수강인원은 한반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별 토론과 발표 중심이며, 매일 예절 Check list 수행,

	<p>마지막에 팀별 인성과 관련된 UCC를 제작하여 Contest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p>
동덕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교수의 지도와 세 차례의 초청 특강이 병행되며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그리고 진솔하며 개방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 • 주교재와 함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에듀클래스의 자료실에 보교재가 업로드되어 수강생들은 각자 다운받아 사용 • 에듀클래스는 질의 응답과 피드백을 위한 공간으로 항상 Open
서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3~4개의 주제가 포함되며, 영역별로 주, 부 담당교수를 두어 3명의 교수가 모든 수업에 참여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 6주차에는 외부기간 봉사활동, 학기가 정리되는 13주차에는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을 초대하여 진로 탐색/전공 선택 등에 대한 고민 공유/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
서울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학년은 3주, 2주 동안 합숙 • 3학년은 교과목 형태로 구성 • 바롬인성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양필수(3학점, 바롬인성교육1/2/3), 평균평점 B+(3.5)이상 -바롬인성심화 5개영역 이수, 5과목 평균평점 B+(3.5)이상 • 봉사활동 : 64시간 이상 • 바롬인성 심화과정 포트폴리오 제출: 교과관련 과제, 봉사활동 내역 등 포함
성균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이론 중심 또는 서구 중심적인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고유 가치에 기반을 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형 인성교육프로그램 • 강의(Flipped Classroom방식), 조별토론/발표, 질의/응답, 과제발표(체험), 성과물 발표(창조)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및 문제 해결 학습이 주임. • 수업 끝엔 자기 PT 통해 변화 전의 자기와 변화 후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함
성신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주 교과 내 프로그램과 4개의 교과 외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Mission1,2) : 나를 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Mission3) : 타인을 품다 - 우리(Mission4) : 공동체 사회와 미래를 품다 • ‘표준교육안’과 ‘강사매뉴얼’ ‘워크시트’ ‘공동교육콘텐츠’ 등을 교강사들이 공유 • 팀별 프로젝트 우수 팀 선정, 상수여와 전시로 전교생 공유
연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 또는 그와 유사한 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 1명, RC 학생 3~7명, 총 50명으로 프로그램 운영 - RC 환경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함이 없이 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 활용 • 각 분야별 ‘성’에 대한 기초 강연 • 각 분야별 선정 도서 - 성에 대한 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를 함으로써 (즉, 자연과학, 심리학,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학생들이 성에 대한 입체적, 심층적 이해를 돕음 - 선정된 책의 도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조별 퀴즈 • 교내기관 및 외부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센터 등의 교내 유관기관 등의 초빙 강연 • 교육 내용 확인, 평가 및 학생주도형 학습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별 주제에 따른 포럼 및 토론을 진행
인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의 공학’은 지역-대학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팀프로젝트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지역사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공감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를 찾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짐 • 이후 지역사회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해결의 전과정(문제 인식-정보조사-문제정의-해결안 구안 및 선정-실행-검증 및 평가)을 다룸. • 최종 결과물 제출 및 발표, ‘나눔의 공학’ 페스티벌 개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관련 인사들은 모두 모시고 교과목 성과 발표회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학습결과에 대한 보람과 서비스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고 관련 분들에게는 학습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추후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갖도록 하는데 기여
중부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학, 리더십, 예절, 창의로 인성 전임교수가 운영

진주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성찰, 관계 성찰, 예절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전체강의를 체험식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성찰 : MBTI(성격검사), 미술치료 - 관계성찰 : 공감프로그램, 인성교육 특강 - 예절교육 : 예절 탐구 • 다문화, 다변화 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참된 교사의 덕목, 마음가짐 등 인성적 측면을 부각 • 미래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교사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절, 행동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
청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PT, 실습, 체험, 토론 <p>수업 중에 최초의 농어촌 인성학교인 거북이마을에서 재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관혼상제에 쓰이는 인사법 및 제례 방법과 종류에 대한 교육(뉴스타운 기사 2014.11.26.)과 한복 체험, 다도, 소리, 음식문화와 상차림 등의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워 현재를 살고 있는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p>

2. 대학생의 인성실천도 분석

1)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대학의 인성수업에 관련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7>과 같다. 응답자가 참여한 인성교육의 형태는 ‘인성교과목’ 222명(45.8%), ‘일일특강’이 125명(25.%), ‘사회봉사’가 70명(14.4%), ‘단기캠프 또는 워크숍’이 40명(8.2%), ‘기타’가 28명(5.8%)로 절반정도가 대학 내에서 인성교과목 형태로 인성수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인성수업은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서는 ‘매우 그렇다’가 20명(4.1%), ‘그렇다’ 145명(30.1%), ‘보통이다’ 258명(53.2%), ‘그렇지 않다’ 43명(8.9%), ‘전혀 그렇지 않다’ 18명(3.7%)으로 보통이상이 423명(84.4%)으로 대학 내에서 경험한 인성수업이 인성함양에 대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에서 인성에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120명(24.7%), ‘필요하다’ 245명(50.5%), ‘보통이다’ 99명(20.4%), ‘필요하지 않다’ 15명(3.1%), ‘전혀 필요하지 않다’ 6명(1.2%)로 75% 이상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수업 시 적정 인원은 ‘10명 이내’가 133명(27.4%), ‘11명~20명 이내’ 195명(40.2%), ‘20명~30명’ 120명(24.7%), ‘30명~40명’ 37명(7.6%)으로 나타나 ‘11명~20명 이내’ 수강인원이 적정하다(40.2%)라고 나타났다.

또한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당한 수업기간으로는 ‘1학기’ 155명(32.0%), ‘2학기’ 224명(46.2%)로 3/4 이상이 1학기 또는 2학기 동안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당한 수업기간이라 대답하였다.

인성수업을 수강하고 싶은 학년은 ‘1학년 시기’가 293명(60.4%), ‘2학년 시기’ 108명(22.3%)로 전반적으로 82.7%가 1학년 또는 2학년인 저학년 시기에 수강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배려나눔의 의식부족’이 313명(64.5%), ‘지식위주교육’ 91명(18.8%), ‘인간성상실현상’ 31명(6.4%), ‘가치관혼란’ 38명(7.8%), ‘기업이 원하는 인재’ 12명(2.5%)로 응답자의 83.3%가 ‘배려나눔의 의식부족’과 ‘지식위주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 내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점은 ‘다양한 인성교과 개설’이 242명(49.9%), ‘교수의 관심과 열의’ 79명(16.3%), ‘지도교수상담활

성’ 57명(11.8%), ‘학교행사참여유도’ 49명(10.1%), ‘수강인원감축’ 33명(6.8%), ‘봉사활동내실’ 25명(5.2%)로 대학에서 다양한 인성교과목 개설 및 담당교수 뿐 아니라 지도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가장 적절한 인성교육 방법으로는 ‘인성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이 133명(27.4%), ‘교양수업을 통해서’ 121명(24.9%), ‘단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이 105명(21.6%), ‘전공수업’ 72명(14.8%), ‘봉사활동’ 54명(11.1%)으로 응답자 절반이상이 인성교과목 및 교양수업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대학생들의 대학 인성교육에 관한 인식

(N=485)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참여한 인성교육 의 형태	인성교과목	222	45.8	인성수업 수강을 원하는 학년	1학년	293	60.4
	일일특강	125	25.8		2학년	108	22.3
	사회봉사	70	14.4		3,4학년	35	7.2
	단기캠프 또는 워크샵	40	8.2		상관없다	44	9.1
	기타	28	5.8		배려나눔의식부족	313	64.5
참여한 인성교육 이 인성함양 도움정도	전혀그렇지않다	18	3.7	인성교육 이 필요한 이유	지식위주교육	91	18.8
	그렇지않다	43	8.9		가치관혼란	38	7.8
	보통이다	258	53.2		인간성상실현상	31	6.4
	그렇다	146	30.1		기업이원하는인재	12	2.5
	매우그렇다	20	4.1		다양한 인성교과개설	242	49.9
인성교육 의 필요성	전혀그렇지않다	6	1.2	대학인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점	교수의관심열의 유도	79	16.3
	그렇지않다	15	3.1		지도교수상담활성	57	11.8
	보통이다	99	20.4		학교행사참여유도	49	10.1
	그렇다	245	50.5		수강인원감축	33	6.8
	매우그렇다	120	24.7		봉사활동내실	25	5.2
인성관련 수업 적절한원	10명이내	133	27.4	적절한 인성교육 방법	단기프로그램	105	21.6
	11명~20명이내	195	40.2		인성교과	133	27.4
	20명~30명이내	120	24.7		교양수업	121	24.9
	30명~40명이내	37	7.6		전공수업	72	14.8
인성함양 위한 적정 수업기간	1학기	155	32.0		합계	봉사활동	54
	2학기	224	46.2	485		100.0	
	3학기	43	8.9				
	4학기	40	8.2				
	5학기이상	23	4.7				

2)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를 하위요인인 양육태도_애정, 양육태도_감정대응, 의사소통_개방, 의사소통_폐쇄, 인성중요도, 인성실천도에 관한 연구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통하여 평가한 결과, GFI=.911, AGFI=.885, NFI=.911, CFI= .946, RMR=.044, RMSEA=.05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가능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 하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IV-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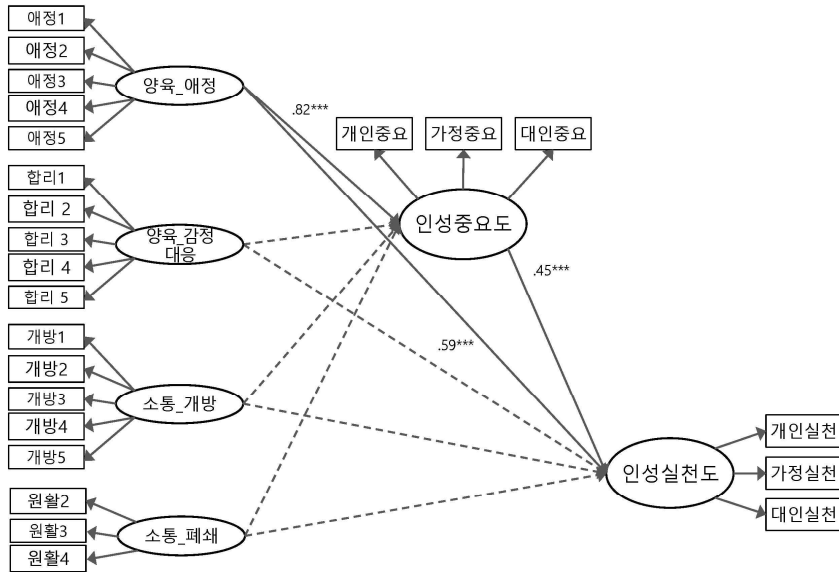
가정환경체계 하위요인 중 양육태도_애정만 인성실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 <그림IV-1>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표IV-8>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 하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검증

경로	종속: 인성실천도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p
가정환경체계 → 인성실천도	.232	.030	4.948	.000***
양육태도 애정 →	.823	.082	4.383	.000***
양육태도 감정대응 →	.163	.103	.745	.456
의사소통 개방 →	.237	.065	1.577	.115
의사소통 폐쇄 →	.224	.095	1.060	.289
양육태도 애정 →	.587	.078	3.787	.000***
양육태도 감정대응 →	.097	.089	.585	.558
의사소통 개방 →	.123	.058	1.057	.290
의사소통 폐쇄 →	.068	.082	.429	.668
인성중요도 →	.453	.081	6.449	.000***

모형적합도:chi-squar=558.203 (p=.000), df=232, χ^2/df =2.41, GFI=.911, AGFI=.885, NFI= .911, CFI=.946, RMR=.044, RMSEA=.054



<그림 IV-1>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 하위요인, 인성실천도의 구조모형

3)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를 하위요인인 창의적교수법, 학교수업참여, 학교행사참여, 교수의 정서적지지, 인성실천도에 관한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통하여 평가한 결과, GFI=.911, AGFI=.903, NFI=.922, CFI=.951, RMR=.028, RMSEA=.05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 하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IV-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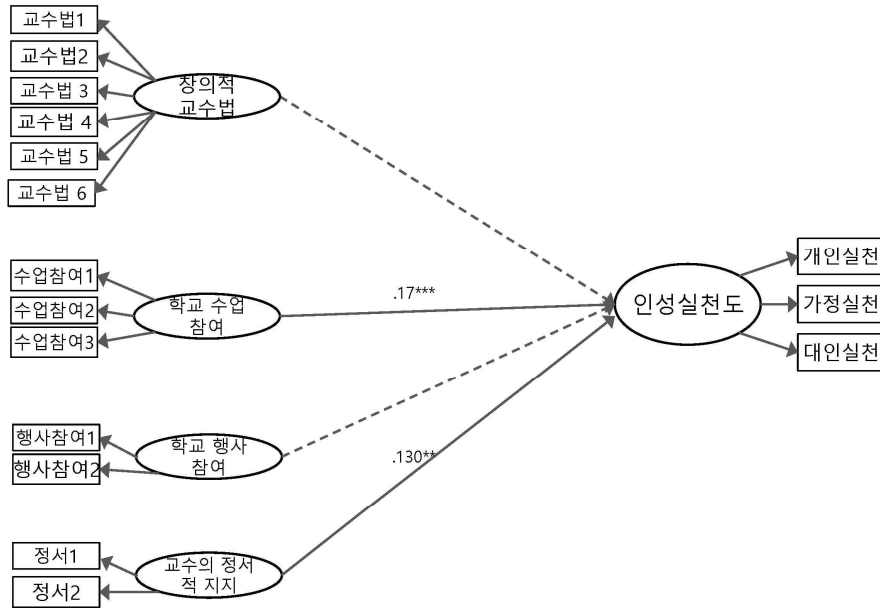
학교환경체계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참여, 교수의 정서적지지가 인성실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 <그림IV-4>에 제시하였다.

<표IV-9>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 하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검증

경로		종속: 인성실천도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p
학교환경체계 → 인성실천도		.262	.106	2.486	.013*
하 위 영 역	창의적 교수법 →	.065	.033	1.548	.122
	학교수업참여 →	.171	.026	3.561	.000***
	학교행사참여 →	.058	.024	1.195	.232
	교수의 정서적지지 →	.129	.025	2.719	.007**

모형 적합도:chi-squar=331.909,(p=.000), df=134, $\chi^2/df =2.477$, GFI=.911,
AGFI=.903, NFI= .922, CFI=.951, RMR=.028, RMSEA=.055



<그림 IV-2> 대학생의 학교환경체계 하위요인, 인성실천도의 구조모형

4)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를 하위요인인 친구의 정서적지지,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 인성중요도, 인성실천도에 관한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통하여 평가한 결과, GFI=.976, AGFI=.949, NFI=.971, CFI=.984, RMR=.017, RMSEA=.051로 나타나 모형이 수용가능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 하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IV-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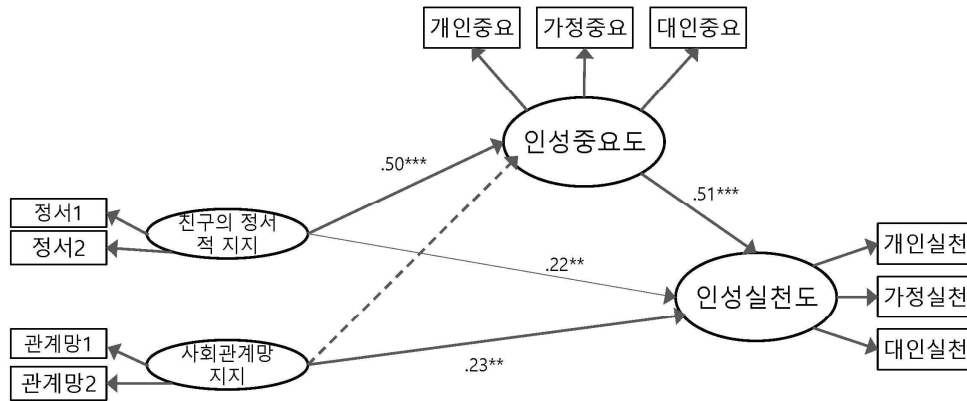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 하위요인 중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는 인성실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 <그림IV-3>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표IV-10>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의 하위요인이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검증

경로	종속: 인성실천도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p
사회환경체계 → 인성실천도	.269	.101	2.240	.025*
친구의 정서적지지 → 인성	.499	.045	5.007	.000***
하위영역: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 → 중요도	.163	.056	1.693	.091
친구의 정서적지지 → 인성	.215	.043	2.717	.007**
하위영역: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 → 실천도	.227	.060	2.629	.009**
인성중요도 →	.509	.083	7.353	.000***

모형적합도:chi-squar=59.185 (p=.000), df=26, χ^2/df =2.276, GFI=.976, AGFI=.949, NFI= .971, CFI=.984, RMR=.017, RMSEA=.051



<그림 IV-3> 대학생의 사회환경체계 하위요인, 인성실천도의 구조모형

5) 대학생의 각 환경체계가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구성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연구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전반적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합지수(GFI: Goodness Fit Index), 조정적합지수(AGFI: Adjusted GFI), 증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원소간 평균잔차(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모집단원소간 평균잔차(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Bagozzi 외, 1988; 김기욱, 2010).

모형의 적합도 기준부합지수는 GFI(Goodness of Fit Index)와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값이 기준치인 0.9 이상이고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은 기준

치 0.08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 인성중요도, 인성실천도에 관한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GFI=.955, AGFI=.921, IFI=.962, CFI= .962, RMR=.019, RMSEA=.062로 나타나 모두 기준에 충족하여 모형이 수용가능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 인성중요도, 인성실천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IV-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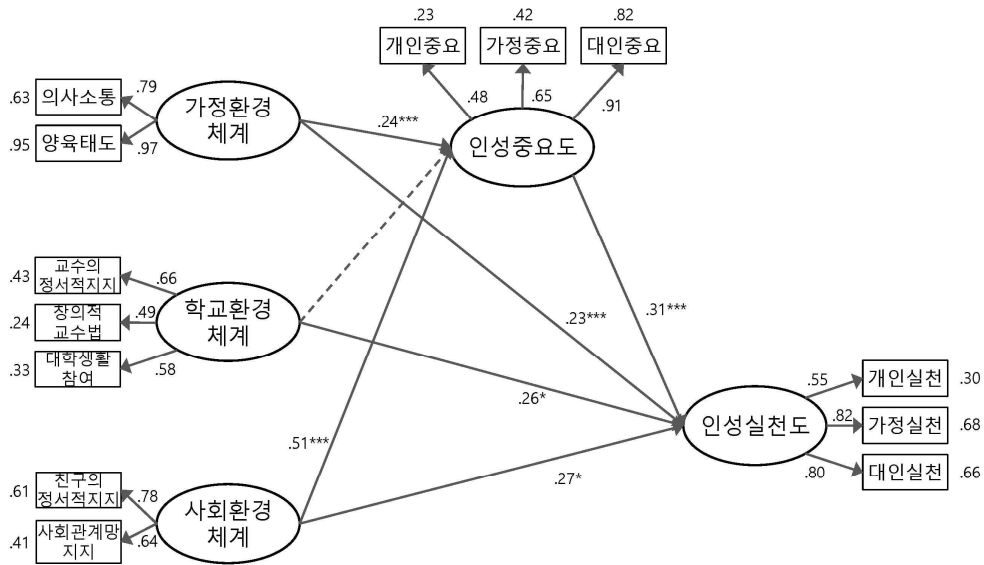
먼저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 인성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인성실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 <그림IV-2>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표IV-11> 구성변수 간의 관계 분석결과(기본연구모형)

경로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p
가정환경체계	→	.236	.032	4.150	.000***
학교환경체계	→ 인성중요도	.097	.112	0.747	.455
사회환경체계	→	.514	.106	3.488	.000***
가정환경체계	→	.232	.030	4.948	.000***
학교환경체계	→ 인성실천도	.262	.106	2.486	.013*
사회환경체계	→	.269	.101	2.240	.025*
인성중요도	→	.313	.082	4.451	.000***

모형적합도 : chi-squar=149.249 (p=.000), df=52, χ^2/df =2.87, GFI=.955
AGFI=.921, IFI= .962, CFI=.962, RMR=.019, RMSEA=.062



<그림 IV-4> 대학생의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 인성중요도, 인성실천도 간의 구조모형

(1)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가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성중요도의 간접효과 검증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과 인성중요도, 인성실천도 간의 직접 및 간접 효과를 분해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와 총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는 인성실천도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가정환경체계가 인성중요도를 거쳐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간접경로의

표준화계수는 .074 ($p < .00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총효과도 .306($p < .004$)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체계가 인성중요도를 거쳐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체계가 인성중요도를 거쳐 인성실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61 ($p < .012$)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총효과도 .430($p < .04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환경체계와 사회환경체계는 인성중요도를 거쳐 인성실천도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였으며, 학교환경체계는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표IV-12>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표IV-12> 대학생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체계의 인성실천도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가정환경 → 인	.236(.000)***		.236(.000)***	.520
학교환경 → 성	.097(.097)		.097(.097)	
사회환경 → 요	.514(.000)***		.514(.000)***	
가정환경 → 인	.232(.004)**	.074(.005)**	.306(.004)**	.767
학교환경 → 성	.262(.013)*	.030(.506)	.293(.071)	
사회환경 → 실	.269(.025)*	.514(.012)*	.430(.040)*	
인성중요 → 천	.313(.000)***		.313(.004)**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인성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규명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의 지향성을 재고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 인성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실증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의 인성실천도 분석을 병행하였다.

대학 인성교육의 현황 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부터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인성 교육 3.0>사업에 선정된 4개 대학교와 문헌고찰, 저널 및 신문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된 9개 대학교 등 총 13개 대학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 인성교육 현황분석은 크게 목적적·구조적·내용적 측면 3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목적적 측면은 각 대학의 건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를 중심으로 NVivo 11(Trial version)을 활용한 텍스트 자료 분석을 통해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철학을 파악하였고, 인성과목에 대한 수업목표를 조사 분석하여 수업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인성 과목 개설(학년), 과목의 형태를 중심으로 인성수업구조를 살펴보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과목명, 수업내용 및 수업방식을 중심으로 수업의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인성실천도는 문헌고찰 및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이론을 토대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가설적 모형은 미시체계 요인과 유기체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미시체계 요인은 유기체에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이며 유기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변인으로 구성된 가정환경체계, 인성교육을 위한 ‘창의적 교수법’, ‘수업참여’, ‘수업 외 참여’, ‘교수의 정서적지지’를 변인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체계, ‘친구의 정서적지지’와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를 변인으로 구성된 사회환경체계로 구성하였다. 유기체 요인은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으며 한 개인 자신이 지니는 인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인성중요도’와 결과변수로서 인성을 실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성실천도’로 규정하였다.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와 관련된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대학에서 인성관련 수업의 수강 경험이 있는 국내 4년제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으며, 이 중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15부를 제외한 485부를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Windows program 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인성교육 현황 파악 분석 결과는 ① 목적적 측면에서는,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철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인성 함양과 증진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성 과목에 대한 수업의 방향성은 인성 증진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실천 중심으로 수업 목표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조적 측면에서는, 1학년 혹은 전 학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이 절반이상인 7개 대학으로 나타났

다. ③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론 중심의 수업 내용과 방식을 추구하는 대학 2개이며, 나머지 11개 대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습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실습 중심의 대학 중에서 강의실 위주의 단순 실천형으로 인성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이 4개이고, 현장 체험형 인성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은 7개로 나타났다. 전공과 연계한 인성 수업을 진행하는 2개 대학과 기숙사형 인성 수업을 진행하는 2개 대학도 주목할 만하다.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인성을 함양하는 과업이며,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페스탈로치는 마음(heart), 손(hand), 머리(head)를 고루 기르는 삼육(三育)을 내세워 이들 요소가 인간성 함양을 위해 중요하다(손승남, 2014)라고 하였다.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Nvivo 11 (trial version)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단어는 도덕성, 인성 관련 항목이 33회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나 이념이 교육이라는 본질의 목표에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인성과목에 대한 수업의 방향성은 각 대학들의 철학에 맞추어 인성 증진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실천 중심으로 수업 목표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성과목의 수업구조는 대부분 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각 대학마다 명칭상의 차이는 있으나, '1학년 교육의 강화'를 위해 '기초교육원', '기초교육대학' 등 1학년 교육을 전담하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신설하여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기초학력증진을 목적으로 교육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발, 운영(김은정의, 2008)을 하였다. 이 중 하나의 접근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

육은 일종의 신입생 교육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성과 인생관 확립, 그리고 올바른 진로 결정과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유솔아, 2011)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대전대학교, 건양대학교의 경우는 전 학년이 수강신청이 가능한 점과, 인하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의 경우 3학년만을 대상으로 인성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과목 형태를 살펴보면 연세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는 조사된 인성관련 과목의 경우 비교과목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교양선택(교선)과 교양필수(교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전공선택(전선)으로, 인하대학교는 전공필수(전필)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내용적 측면에서 인성수업특징은 이론 중심의 수업 내용과 방식을 추구하는 대학 2개이며 나머지 11개 대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습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습 중심의 대학 중에서 조별토론/발표/질의·응답/과제발표(PT포함)/명사초청 등의 강의실 위주의 단순 실천형 대학이 4개(대전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진주교대)이고, 그 중 향후 전공과 연계한 인성수업을 진행하는 2개 대학(인하대, 서울대)이 특징적이며, 현장 체험형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은 7개(건양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연세대, 인하대, 청운대)로 각각 외부 봉사활동, 농어촌 인성학교 방문 및 과목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현장(식당) 수업을 진행하는 4개 대학(서울대, 청운대, 건양대, 성신여대),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인성수업을 진행하는 2개 대학(서울여대, 연세대), 전공과 연계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1개 대학(인하대)이다. 이는 대학에서의 인성 교육의 성격이 수업 방법에서 여전히 체험과 실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전제아(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대학생의 인성실천도 분석 결과는 ① 인성실천도에 대해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 인성중요도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력은 인성중요도, 사회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가정환경체계 순이다. ② 인성중요도에는 가정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환경체계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인성실천도는 가정환경체계, 사회환경체계가 간접 및 총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학교환경체계는 직접 효과만 있었다. ④ 가정환경체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이 인성실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환경체계에서는 학교 수업참여정도와 교수의 정서적 지지가 인성실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환경체계에서는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지가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가정환경체계는 인성실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성중요도를 경유하여 인성실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정환경체계 중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의 경우,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인성을 실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많은 선행연구(김재은,1979; 박미연,2003; 정현주,2006; 송인섭 외,2006; 최민정,2011; 김한솔,2012; 이현아,20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환경은 유아기로부터 아동기, 사춘기를 거쳐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성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대학생의 인성실천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

학생이 자각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태도’는 대학생이 인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인성을 실천하는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될 때, 그리고 애정적인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들(서택석, 1998; 최강준, 2003; 정현주, 2006)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부모와 안전한 애착이 이루어진 대학생은 개인적, 사회적 정체감 형성이 잘 되어 있다는 Lapsley, Rice & Fitzgerald(199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태도는 자녀가 바른 인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는 요소임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환경체계는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중등 교육 뿐 아니라 대학교육도 인성을 함양시키고 실천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다고 자각하는 학생이 인성을 실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 대학생이 인성을 실천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에서도 인성교육이 필요한가?’라는 명제에 일정부분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인성실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수업환경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유경훈, 2009; 허은영, 2009; 정영란 외, 2012) 결과와도 일치하고, 또한 학습참여도가 실천적 태도를 신장한다는 이숙향(20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교수의 정서적 지지가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교수-학생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지적,

사회적 성취를 높이고, 능동적인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유현숙 외, 2011; 최정윤 외, 2010; 배상훈 외, 2015)과도 일치한다. 또한 교수-학생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뿐 아니라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배상훈 외, 2015)와 연결해 본다면 교수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교수는 학생의 인성향상을 위해 존중과 믿음의 태도로 학생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정서적 지지는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성을 실천하는데도 영향을 주므로 교수자는 성인 길목에 있는 대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멘토로서, 롤 모델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고 교수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방법을 연구·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대학에 오기 전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치열한 경쟁사회에 놓여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적 강화가 미흡했다. 중등교육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성을 배양시키고, 그 실천 역량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성품과 인성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대학의 인성교육을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 분석을 보면, 사회환경체계는 인성실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성중요도를 경유하여 인성실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친구의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는 대학생이 인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태도인 가정환경 영향요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성을 실천하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사회관계망의 지지는 인성을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2. 대학 인성교육의 재고

대학에서의 인성교육현황과 대학생의 인성실천도에 관한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재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성은 가정환경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인성교육은 가정교육이 그 시발점이며 부모의 삶의 태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싶어도 학생이나 부모가 서로 바쁜데다가 방법도 익숙하지 않으며 또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학교에서 사랑, 연애, 성, 결혼 등의 ‘성교육’이나 ‘사랑학’과 같은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부부간의 역할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독립과 결혼을 구체화하는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예비부모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예비부모교육 관련 연구(안혜준 외, 2007; 허영림, 2007; 이병래, 2003; 나은경, 19926) 결과, 대학생들이 자율적이며 애정적인 민주적 양육관을 갖게 되었고, 미래 부모로서의 책임과 헌신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대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김선주(2016) 연구에서도 부모역할훈련 교육이 여대생의 예비부모로서의 기본자질 및 지식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에서는 최근 ‘대학 부모교육 강의 사례집’을 만들어 전국 대학에 배포하였다. 이는 부모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전국 각 대학에 부모교육 교양과목을 개설하도록 권고해온 데에 따른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교육 교양과목 강좌를 개설하려는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 강의를 한 정순화 교수는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직업 선택과 자녀 양육인데, 좋은 직업을 갖으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데 반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했다. 우희정 교수는 “2000년부터 매 학기 부모교육을 실시해 온 결과 해마다 남학생 수강생이 늘고 있으며, 학생들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조선에듀 <http://edu.chosun.com/>, 작성일 2016.07.18.).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에서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며,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관의 확립은 대학생의 인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향상 뿐 아니라 인성을 실천하는 정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을 전공과 연계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함으로써 인성 교육을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성교육 구성요소에 대한 학년별 교육적 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난 김선주(2016)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학년별, 전공별 특성에 따른 인성수준과 요구도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1학년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전공강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아진 관심과 참여도를 기반으로 보다 인성실천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선택한 전공의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게 되었을 때 학교환경에서의 인성교육은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이는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특정교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

지만, 전공 및 교양교과영역과 인성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성교육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홍순희, 2014)”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셋째,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도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회인인 대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형태의 인성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대학생의 인성교육 현황 파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숙형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학이 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이 제공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친구를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음으로써 상호 이해, 존중 및 배려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생활에서 교수가 부모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직장 상사의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면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이 가정에서 독립하고 미래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가정에서의 부모의 애정은 학교에서의 교수 지지로 발전되고, 교수의 관심과 지도편달은 결국, 미래 직장환경에서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과 연계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이 ‘인성실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가정, 학교, 사회환경체계의 영향 요인이 인성실천도 증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각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체험·실습형 인성 과목별로 인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생활에서 교수의 역할과 학교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교수의 인성,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의 역량과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환경조성이 대학생의 인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중등을 거쳐 대학에 이르기까지 실시한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 및 미비점을 연구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에 반영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보완하는 선순환 구조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성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까지 인성교육의 연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인성교육 전후 효과성 검증 및 인성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 연구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Big Data 기반에 입각한 인성교육 연구 영역의 확대도 필요하다.

그리고 인성의 핵심 가치인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8가지 요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와 적용을 통해 인성실천도 향상을 위한 연구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인인 대학생들에 대한 인성실천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인턴제도와 비슷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성을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수료한 취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효능감, 취업태도 등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대학 졸업반 학생, 대학원생 등으로의 확대까지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인성 현황 파악 및 대학생 인성실천도에 관한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임의 표집에 의거한 제한된 표본 수만을 갖고 있어 이로 인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윤수,고상숙,권오남,류희찬,박만구,방정숙,이중권,정인철,황우형(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 교우사.

박영옥 외(2016). SPSS를 활용한 통계자료분석: 경문사.

송지준(2008). (논문작성에 필요한)SPSS 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우종필(2012).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이원영(2011).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임정빈, 지영숙, 문숙재, 이기영, 이연숙(2002). 가정관리학: 신정.

한국교육학회(1998). 인성교육. 서울:문음사.

R.디컨·F.화이어버/가정관리학연구회 옮김(1991). 가족자원관리 원리와 적용. 한울아카데미.

Bronfenbrenner ,U.(1992). 인간발달생태학.이영(역). 서울:교육과학사.

Barnes, H., & Olson, D.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Bronfenbrenner,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ower,F.C.(2005). *Characterpsychologyandcharacter* 160 education.Notre Dame, IN: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Lickona, T. (1992). *Educating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Books.

House, J.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Schaefer, H.F.,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6, p. 398.

< 논문 >

강대식(2013). 대학교육 환경에서 원격 학습효과와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논문

장보라, 이사라(2013). 대학인성교육 그 방향성에 대하여 : 국내 외 대학 인성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28, 69-102.

고시용, 백현기(2012). 대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마음과 행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641-649.

교육과학기술부(2010).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곽정환(2003).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성. 통일세계, 4, 68-81.

권도영(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영향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권순범, 남동수, 이태욱(2012). STEAM 기반 통합교과 학습이 초등학생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7(2), 9-86.

권혜진(2007).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지각과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

- 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국현(2015). 도덕적 성찰과 도덕적 자아 정체성 발달.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2015년 8월, 311-326.
- 김기욱(2010). 소비생활복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한국소비자학회, 21(3), 167-194.
- 김경숙(2007). 문학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한국의 청소년 문화, 139-166.
- 김광림(2005). 칭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적응, 부모-녀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명순, 김성희(2012). 대학생용 유교적 인성 척도 개발. 교육학연구, 50(1), 27-53.
- 김선애, 연진영(198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 변인.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10(2), 45-60.
- 김선주(2016).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효과 연구. 교양교육연구, 10(3), 383-414.
- 김선주(2016). 대학생 인성수준 및 요구도에 따른 인성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23(2), 1-19.
- 김순환, 남옥선, 박선훈(2014). 인성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조사-3,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19(1), 363-391.
- 김옥수, 백성희, 김계하(2003). 조선족 근로자의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15(4), 607-616.
- 김우창(1996). 윤리, 도덕, 인성-대학의 인성교육-. 서강인문논총, 5, 3-52.
- 김은정, 양정미, 이원경, 홍혜경(2008). 1학년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 ‘대학 1학년 실태조사’의 활용 사례 연구-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교양교육연구, 2(1), 64-78.
- 김재엽, 정윤경(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정미(2014). 유아의 교육 참여에 대한 어머니의 동기적 신념과 부모-교사 관계가 유아의 학습관련기술에 미치는 영향. 경의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선, 김한나(2016).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국내 연구논문의 통합적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4), 547-555.
- 김정운, 김영희(2009). 아동, 청소년상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287-2301.
- 김창희(2014).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편견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태현, 노명래(1998). 순천향대학교의 인성교육 방안 연구. 6, 5-49.
- 김한솔(2012). 가정환경 수정이 농촌 노인들의 작업 수행도 및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의철, 박영신, 김영희, 민병기(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5(1), 57-76.
- 김희진(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 나은경(1992). 고등학생의 부모기에 대한 이해와 유아기 자녀교육에 관한

- 태도연구: 대전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노이경, 정남운(2007).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한 구조화된 집단상담의 성장촉진요인. 한국심리학회지, 4(2), 99-123.
- 류청산, 진홍섭(2003). 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인성 덕목의 분류와 요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09-140.
- 문용린 외 (2010).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정책연구2009-019). 서울:한국과학창의재단.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 박미경, 정경희(2002). 일부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외로움, 음주 및 건강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72-83.
- 박미연(2003). 환경변인, 창의적 인성, 창의적 사고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선주(2013).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와 과학교과의 통합수업이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성미, 허승희(2012). 청소년용 통합적 인성 척도 개발. 아동교육, 21(3), 35-47.
- 박성연(2005).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생활환경연구소 논집, 3, 25-36.
- 박세정, 고강호(2014). 대학생의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고찰. 부모교육연구, 11(1), 35-50.

- 박은미(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초기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 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박은민(2012).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7), 497-509.
- 박은민, 이주희, 강지희(2016). DS 인성교육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교원교육,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32(3), 219-239.
- 박인선, 홍영운,곽성희, 주영애(2013).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매너·예절교육 연구 동향 분석:1996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27(2), 19-29.
- 박정민, 강경중(2006).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경북전문대학교문집, 24, 247- 266.
- 배상훈, 홍지인(2015).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3(3), 351-379.
- 백가영(2015). 대학생의 학교환경 인식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고력, 창의성 간의 구조관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법제처(2015). 인성교육진흥법, www.moleg.go.kr
- 서경혜, 최진영, 노선숙, 김수진, 이지영, 현성혜(2013). 예비교사 교직원성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1), 147-176
- 서혜석, 공은숙(200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사회성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5, 53-70.
- 성명희, 김은주(2015).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중요도 인식 및 인성발달 수준과 요구도 분석.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38(7),

177-202.

성미혜, 임영미, 주경숙(2011).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한국 보건간호학회, 25(1), 95-106.

성은현, J.C.Kaufman, 이문정, 김누리(2012). 창의적 수업환경 질문지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창의력교육연구, 12(3), 113-131.

손동현, 박주호, 유기웅, 정종원(2012).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손동현(2015년). 교육구조의 개혁과 교양교육의 새 위상. 한국교양교육학회/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5년 춘계전국학술대회,10-18.

송성성(2014). 부모-자녀간의 애착유형과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성향 및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중국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손승남 (2014). 대학 인성교육의 교수학적 고찰. 교양교육연구,8(2),11-41

손승남, 임배 (2015). 대학 인성교육으로서 ‘삶의 치유 (Lebenstherapie)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가능성 탐색. 교양교육연구, 9(2), 117-144.

송인섭, 안혜진, 김나현, 정미경(2006). 가정환경 구조모형의 타당화. 20(1). 1-19.

신건호(2004). 인간지향적 부모자녀관계와 지위지향적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공감과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8(2), 143-159.

신미자(2002). 자아정체감과 양육태도와 비행경험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신자은(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정서표현성향간의 관

- 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신정철, 정지선, 신태수(2008).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287-313.
- 신정혜(2003).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 신혜정(2005).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중,고)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신종호, 홍성연(2013). 대학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에서의 동료평가 프로그램
도입 방안 탐색.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30(1),
201-230
- 안혜준, 송승민(2007). 대학 예비부모교육 강좌의 수강 전후에 나타나는 대
학생들의 자녀교육관 및 자녀양육태도의 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19-1130.
- 양승실, 김현진, 주경필(2006).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분석.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45-170.
- 양혜련(2006). 대학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 15,
1-28.
- 왕명자, 김정아(2004). 비만여성과 정상체중 여성의 사회적지지 및 건강지각
의 비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5(4), 48-60.
- 왕석순(2004). 제7차 가정과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인성교육 내용 체계화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2), 13-26.
- 엄상현 외(2014). 인성덕목을 활용한 융합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4년 정책연구개발사업.
- 엄태완, 강명진, 최정순(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

- 사회적지지: 성차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
총, 5-30.
- 여정희, 현미열, 이은주, 박은옥, 김정희, 송효정(2005). 일 대학생의 심리사
회적 성숙도, 우울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4(1),
73-81.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15.
- 오윤경(2012).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
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 우임덕(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논
문.
- 유경훈(2009). 내·외재동기, 자기결정성 동기가 창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9(2), 69-88.
- 유경훈, 이경화(2010). 「창의성과 문제해결」 수업이 대학생의 창의적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영재와 영재교육, 9(3), 5-20.
- 유솔아(2011). 미국 대학의 신입생 대상 교육과정 실행 사례분석. 비교
교육연구. 21(5). pp.29-57.
- 유현숙, 고장완, 임후남(2011).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학습과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4), 319-337.
- 윤지영(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공업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논문.
- 윤형식(201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리더

- 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광성(1999). 초등학교 수업환경이 사회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연구. *사회과교육*, 8, 393-408.
- 이병래(2003).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유아교육연구*, 23(1), 133-153.
- 이순비, 김경화(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9, 119-136.
- 이숙향(2012). 켈러의 동기이론 적용 문제중심수업을 통한 학습참여도 및 실천적 태도 신장. *미래교육연구*, 2(2), 19-37.
- 이영애(2006). 대학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9(1), 95-104.
- 이영주(2002).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원영(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연구*, 13, 1-18.
- 이원숙(1994). 가족복지서비스의 실천적 접근: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 1, 199-246.
- 이윤선, 강혜영, 김소정(2013). 대학생 인성 검사도구 타당화 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31, 261-282.
- 이윤조(2002).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은주(2014). 창의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미래형 교실 환경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논문.
- 이은진, 박세훈, 오주은, 양미하(2012).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한국

- 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38, 25-53.
- 이종원(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종현(2016). 대학 신입생들의 인성교육 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 교양교육연구, 10(2), 219-250.
- 이주희, 최명선, 박희현(2009).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16(2), 205-220.
- 이하준(2014).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 연구 8(5), 423-448.
- 이한샘(2014). 대학생이 인식하는 주요 발달과업과 대학생의 적응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논문.
- 이현아(2013). 가정 내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 지원 방안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65-82.
- 이혜진, 백진아(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85-107.
- 이호중(2001). 인성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도덕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임선화(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경원, 이지은(2009).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교육행정가, 교사, 예비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1), 315-339.
- 장원재(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소외감과 인터넷 중독에

-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장해순, 강태완(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3(2), 104-130.
- 전신현(2014).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중독에서 우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지지감의 영향 및 그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5, 87-106.
- 전재선(2010).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논문.
- 전재선, 최종욱(2012).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2(1), 149-174.
- 전재천(2000).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전제아(2005). 한국 대학에서의 인성 교육 과정 사례 분석. 인간연구, 9, 5-31.
- 정문성(1996). 사회과 협동 학습에서의 논쟁 교수 모형. 교육논총, 13, 259-276.
- 정소희(2007).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1), 145-170.
- 정영란, 김시온(2012). 중, 고등학생의 메타인지, 자기효능감, 구성주의적 과학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분석. 16(1), 125-144.
- 정원식(1976). 가정교육의 의미. 새가정(chrisian home), 34-37.
- 정원희(2013). 전문대학의 사회과학 교과목 인성교육 연구-교양행정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

- 교양기초교육원 2013년 추계 전국 학술대회, 289-295.
- 정용교(2009). 감성사회의 도래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연구 교원교육, 25(4), 190-207.
- 정은희(2003). 인터넷 채팅중독 청소년의 공격성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대인문제 해결능력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정택용(2016).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정현주(2006). 가정환경이 아동의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조명실(2013). 현실치료를 적용한 대학생의 인성교육 -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현실치료연구, 2(1), 59-75.
- 조수경(200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및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30(1), 61-79.
- 조은경(199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상지대학논문집, 15, 303-338.
- 조수경(200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및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 인간이해. 30(1). 61-79.
- 주영애, 최배영, 김선주, 박홍석(2015). 여대생의 자존감, 자기인식,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영향. 여성연구논총, 17, 69-97.
- 지은림(1995). 대학생의 인성유형, 전공 및 가정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1, 155-171.
- 지은림, 도승이, 이운선(2013). 인성지수 개발 연구. 교육부.

- 지은림 외(2013). 인성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위탁 보고서).
- 지희진(2013).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 7(5), 433-466.
- 진의남(2012).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인식과 개선 요구.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실과교육연구, 18(3), 145-169.
- 차은주, 김영재, 허정훈(2013). 스포츠참가 청소년 인성 평가도구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과학회지, 22(2), 361-373.
- 차봉준(2015). 대학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과 활성화를 위한 시론. 대학철학회논문지 대학철학, 72, 23-45.
- 최강준(2003).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민정(2011).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정환경의 부모요인에 대한 상호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소영(2007). 부모의 ADHD 증상이 양육행동 및 자녀의 ADHD 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슬기(2012). 일부 고등학생의 대인관계성향,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의 관련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정윤, 신혜숙(2010). 한국 대학에서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성격과 대학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대학 특성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7(2), 131-154.
- 최재희(2015). 창의·인성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무용교육의 방향. 한국체육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47-51.
- 최혜영(2001). 학교생활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부모역할. 윤리연구, 48(1),

85-102.

천세영,김왕준,성기옥,정일화,김수아(2012).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연구」.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연구 2012-41.

한세리(2007). 남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7. 7). 청소년게임중독 및 여가활동 결과 발표. 보도자료.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외(2012). 인성교육 답은 무엇인가? 인성교육 대심 포지엄.

한유경(2012).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CR2012-36). 한국교육개발원.

허영림(2007). 대학생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교양교과목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1(2), 165-191.

허은영(2009). 대학생 대상 진로지도 교과목 운영의 효과.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28(4), 77-97.

홍누리(2014).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사회불안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홍순희(2014). 융합형교양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인성교육의 방안과 '새로운' 인간상 모색-〈힐링을 위한 음악과 문학의 만남〉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1), 451-483.

홍정미(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황보영란, 박경란, 전영자(1998). 아동의 인성 및 가정환경변인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6, 193-215.

- 현주(2012). 학교 인성교육의 의의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12-05-02.
- 현주(2013). 인성교육 실태 및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전라북도 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교육청정책네트워크(편). 교육본질에 충실한 인성중심 교육 강화.CRM 2013-50-4.
- 현주, 이해영, 한미영, 서덕희, 류덕엽, 한혜성(2013).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방안 연구(I).RR 2013-01.
- 현주, 최상근, 차성현, 류덕엽, 이해경(2009).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09.
- Anderson, J. C., & Gerbing, D.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nett, J. J.,(2007). Suffering, Selfish, Slackers? Myths and Reality about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 23-29.
- Bagozzi, R. P., & Yi, Y.(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rron, F. & Harrington, D. M. (1981).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AnnualReview of Psychology*, 32, 439 - 476.
- Barnes, H., & Olson, D.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7-447.
- Berkowitz, M. W. L & M. C. (2007). Character Education; Parents as partners. *Educational Leadership*. 63(1), 64-69.
- Cermain, T. A.(1973). Social adjustment, social performance, and social

- skills: A tri-component model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2), 111-122.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Krause N. (1987)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in older adults" *Gerontologist*, 27.
- Kraut, R., Kiesler, S., Boneva, B., Cummings, J., Helgeson, V., & Crawford, A. (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s*, 58, 49-74.
- Lickona, T. (2011). Character education: Seven crucial issues. In J. L. DeVitis & T. Yu. Eds. *Character and moral education*, 23-29. NY; Peter Lang.
- Lin, X. (2001). Designing metacognitive activitie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9(2), 23-40.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chaefer, E. S. (1959).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p. 226-235.

인터넷자료

경희대. <http://www.khu.ac.kr/main.do>

교육부. <http://www.moe.go.kr>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동국대. <http://www.dongguk.edu>

서울대. <http://www.snu.ac.kr>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http://eri.snu.ac.kr>

성균관대. <http://www.skku.edu>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연세대. <http://www.yonsei.ac.kr>

인하대. <http://www.inha.ac.kr>

조선예듀. <http://edu.chosun.com>

중부대. <http://www.joongbu.ac.kr>

진주교대. <http://www.cue.ac.kr>

청운대. <http://home.chungwoon.ac.kr>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한국교양기초교육원. <http://konig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한국교육학회. <http://www.ekera.org/front>

ABSTRACT

Reconsideration of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and character practice of university students -

Park, In Sun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u, Young Ae)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character practice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by grasp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activate the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the actual condition research on the status of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 practice of university students through survey research.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the related data collection is collected from character education data of 13 universities which are 4 universities selected in the <Character Education 3.0> project in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in 2015,

and 9 universities through literature review, journals and newspaper articles. Based on this, the actual condition of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is divided into three types: objective, structural, and content and analyzed.

The purpose in the objective aspect was to analyze educational philosophy of university by text data analysis using NVivo 11 (Trial version) centered on the foundation philosophy, educational purpose and educational goals of each university and to investigate the directivity of the character class by analyzing goals of the character subjects. The purpose in the structural aspect was to look at the structure of classes focusing on the established character subjects(grade) and the formation of the subjects. The purpose in the content aspect was to analyze the traits of the classes focusing on the subject name, class contents and class methods.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 practice,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theory(1979), a conceptual framework and hypothetical model were built.

The hypothetical model is divided into micro system factors and organism factors. The micro system factors are the most adjacent environment and affect organism factors by direct contact. they are home environment which has variables such as parenting attitud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chool environment which has variables such as creative teaching, class participation, extracurricular involvement, professor's emotional support, and social environment which has variables such as friends' emotional support, support in SNS. Organism factors are different from person to person and something that a person have. They are character importance which indicates how important students regard character and character practice which indicates how much students practice character.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30th 2016 to Jun 17th 2016. 5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4-year university students who

had experience related character class. 485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fter discarding 15 questionnaires which was not valid.

Data was analyzed with SPSS 18.0 Win program and AMOS 18.0. an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status are

- In the point of objective aspect, The educational philosophy that the university pursues can be understood to have a lot of significance in promoting morality and humanity cultivation that human beings should have fundamentally. The orientation of the class on the subject of personality was a concept to extend personality improvement not only to oneself but also to other people and society. In addition, the class goal is to focus on practice for practical effects.

- In the point of structural aspect, there are seven universities with more than half of the universities that provide character education for the first or whole year students.

- In the point of contents aspect, there were two universities pursuing theoretical content and methodology, and the remaining eleven universities were conducting practice-based classes based on theory. Among practical-oriented universities, there are four simple practical-type universities in the lecture room and seven experience-type universities in the field.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 practice are

- With regard to character practice,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character importance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The impact is character importance, social environment, family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in order.
- In relation to character importance, home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but school environment showed no significant influence.
- With regard to character practice, the home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was significant indirectly and in terms of total effects, and school environment had a direct effect only.
- Relating to home environment, affection out of parenting attitude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haracter practice, relating to school environment, class participation and professor's emotional support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haracter practice and relating to social environment, friends' emotional support and support in SN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haracter practice.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인선입니다.

본 설문은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인성수준에 미치는 제요인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본인의 평소 생각이나 행동을 기술하는 문항에 진솔하게 표기해 주시면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응답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학문적인 연구 목적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춘 인재가 되도록 우리 대학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디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생활문화전공 박사과정

지도교수 : 주 영 애

연구자 : 박 인 선

1. 귀하가 참여한 인성관련 수업은 어느 유형인가요?

- ① 인성 관련 교과목 ② 단기 인성 관련캠프 또는 워크샵
③ 일일 특강 ④ 사회봉사 ⑤ 기타 ()

2. 학교에서 운영하는 인성관련 수업은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대학에서 인성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I. 다음은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인성관련 수업시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수업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성 담당교수님은 활동 시 학생들이 주관하고, 필요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인성 담당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격려하고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성 수업시간에 학생들끼리 협동과 화합의 과정이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성 수업시간에 학생들끼리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인성수업은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인성수업은 다른 수업에 비해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생각해보고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하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준비에 많은 노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업 중 질문이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 중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업의 팀 활동 및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업 외에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장학습활동(현장실습, 인턴십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을 읽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다음 항목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번호에 √표 하십시오.

	문 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어른 및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진실하고 솔직한 것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불리해질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①	②	③	④	⑤
9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를 존중해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11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12	친구를 배려해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13	친구의 기분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려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14	친구의 고민을 잘 해결해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15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6	단체 활동에서 힘든 역할이 주어져도 잘 협조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대학 친구들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대학 친구들은 나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교수님은 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교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글을 올리면 우호적인 답글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외 활동(봉사, 종교, 인턴, 아르바이트 등)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을 읽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번호에 √표 하십시오.

문 항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다	실천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실천하고 있다	매우 실천하고 있다
-----	---------------	------------	------	------------	------------

1	나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언제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을 공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언제나 진실하고 솔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불리해질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한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친구를 언제나 아끼고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친구를 항상 잘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친구의 기분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언제나 친구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항상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언제나 단체 활동에서 힘든 역할이 주어져도 잘 협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sqrt{\quad}$ 표 하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부모님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화가 날 때 가족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이 내 말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냐”라고 편잔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도 꾸짖기보다 애썼다고 격려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아는데 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부모님 마음대로 결	①	②	③	④	⑤

	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11	부모님은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도 내가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 할 수 없이 허락해 버리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내게 벌을 줄 때 내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은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어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엉뚱한 것을 한다고 나무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은 잘못하게 된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5	부모님은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부모님에게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부모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부모님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내가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솔직하게 대답해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성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주요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① 예 ② 효 ③ 정직 ④ 책임 ⑤ 존중 ⑥ 배려 ⑦ 소통 ⑧ 협동

※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성별 :	① 여자	② 남자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전공 :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예체능계열 ④ 기타()	
학교 소재지 :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농어촌(읍/면)
학교 설립 유형 :	① 국·공립	② 사립
학교 유형 :	① 남녀공학	② 여학교
종교 :	① 있다	② 없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